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5월 10일(음력 4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577 호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뜰 앞의 잣나무' · '마른 똥막대기'

영어로 옮기면?

"스님들 법문 英譯할 인물도 표준도 없다"… 세계화 '기초부실'

"온 누리에 찾아봐도 있는 곳이 없으나 / 두두물물(頭頭物物) 속에 본체가 드러나 있고 / 여러분 앞에 시종(始終)이 없는 빛을 놓고 있습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발표한 봉축법어 일부다. 이 법어를 '제대로' 영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열 손가락안에 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영어로 쓰인 대표적인 세계불교사인 <불교 2500년사(2500 Years of Buddhism)>. 바파트(P.V.Bapat) 교수가 편찬한 이 책은 총 440페이지에 달하지만 한국불교사는 단 한 페이지 분량뿐이다. 한국불교를 외국어로 소개하는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초'가 부실하다. 큰스님들의 법문 등 한국불교를 영어로 소개할 인적 · 물질적 토대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왜 이 같은 현실이 초래됐을까?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며 "언어 자체를 경계한 간화선 중심의 한국불교 특성 때문"이라는 진단만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前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 법문집 등 불교 관련 영문번역일을 15년 이상 해오고 있는 브라이언 베리(국제포교사 · 조계종 국제사이트 자문위원)씨. 그는 '이중번역'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즉 한문투성이 법문을 사전으로 일일이 대조해 한글로 번역한 뒤 다시 영어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나 '마른 똥막대기(乾屎橛)' 등 한국사람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문을 번역하기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주장이다. 달라이 라마처럼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한국불교 세계화는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불교용어 통일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불교 전문 번역자는 "표준화된 용어가 없는 경우 스스로 만들어 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인재발굴 · 양성 소홀의 결과
전문기관 설립 등 대책 절실
"전담인력 없이 외부에 의존"

그러나 무엇보다 관련 전문가들은 "그 동안 불교계에서 인재양성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제대로 된 번역을 하기 위해선 영어 뿐 아니라 한문과 불교에 능통해야 하고 직접 수행을 체험해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영어법회를 열고 있는 청아 스님(대전 자광사 주지)은 "종단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차원에서 해외 유학생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국대 한국어 과정 외국인 스님들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번역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영문학을 전공했거나 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초벌번역층 자체가 얇기 때문에 깊이있는 번역을 하기 위해선 교수 불자회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포교사회 김봉래 회장은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외국에 유학했던 스님이나 재가불자가 아니더라도 친불교 성향의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장>을 영역화하고 있는 한성자(동국대 박사과정 수료)씨는 '종단 차원의 번역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한씨는 "번역을 전담하는 인원 및 기관이 구성되면 결집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인재들을 자연스럽게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조계종의 경우 현재 번역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나 인력이 없다. 필요에 따라 외부인력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포교원 한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번역 전담부서 및 인력 확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한국 비구니계맥 태국에 전한다

5월 7~10일 조계종 3사 7증 파견… 태국 비구니 '매치' 10명 수계

한국불교계가 태국에 비구니계를 전하게 될 전망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5월 2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7~10일 열리는 태국 부처님오신날 행사기간 동안 '매치' 10여명에게 비구니계 수계식 봉행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명성 스님은 "저를 비롯해 광우 스님, 묘엄 스님 등은 정혜사에서 자운 율사로부터 니화상(비구니계를 주는 계사)의 자격을 전해 받았지만, 조계종은 엄연히 2부중이 수계를 주는 것이 전통"이라며 "총무원장 스님께서 공식적으로 종단의 비구 3사 7증(전계사, 교수사, 갈마사와 7명의 증명 법사)을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종단 비구 계사 파견을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의 계맥을 태국에 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이니 종단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수계법회 추진은 마하출라롱컨대학 총장이 명성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임원 등 13명을 태국국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와 부처님오신날 축하사절로 공식 초청함으로써 이뤄졌다.

태국 불교계는 지난 2004년 '세계여성불자대회(샤카디타)' 이후 비구니계단이 살아있는 한국불교계를 전 세계 여성불교의 종주국으로 여겨 전국비구니회에 수계법회를 제안해 왔었다. '매치'로 불리는 태국의 여성출가자들은 비구니 계단이 없어 비구니계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운달 스님은 "비구니계 수계식이 성사된다면 한국불교가 남방불교에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주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명상으로 치유… '색즉시공'의 율동

5월 2~3일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네트워크(APPAN · 한국본부장 이선옥)는 '명상치유공연예술'을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심포지엄과 축제를 열었다. 공연에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무용가들이 명상치유에 관한 학술 발표와 각 국의 명상 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선무 창시자인 이선옥씨가 선무도와 선무용을 결합한 '색즉시공 2006년'의 한 장면.

사진=고영배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10~11면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스님



시방세계 7면
동국대소장 '국보전'

가정내 종교갈등 어떻게 4면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14면

부처님오신날 연휴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지역에 따라 배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힘을 그대로…"

동국대, 서정주 미공개 詩 · 만해 친필 공개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미당 서정주 시인의 미발표작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친필 유적 병풍(사진)을 잇달아 공개했다.

동국대는 5월 4일 열린 건학 100주년 기념 '동국백년전'에서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 만해 한용운 스님의 친필 유적 병풍을 최초로 공개했다. '심우도'를 내용으로 하는 10폭짜리 이 병풍은 만해 스님의 필체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앞서 동국대는 5월 1일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출신인 미당의 서정주 시인의 발표시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를 발표했다. "국선화랑도와 불교의 원만한 통합정신을 이어 받아서"로 시작되는 이 시는 동국대학교 100년의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것으로 10년 전인 1996년 5월 시인이 미리 써 둔 것이다.

김두식 · 남동우 기자

부처님과 10대 제자 · 불교성인들 사리 전시회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5월 15일까지
성철 스님 법골친견기회, 문의(061)852-1755

www.shmall.net



달마의 氣

건강과 행운의 징표를 그대에게 선물합니다.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1588-3278



新春大福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달마란 예부터 병귀(病鬼)나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맥을 차단하고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마 목걸이, 귀고리를 착용하여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세요. 반드시 행운이 당신곁에 함께 합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정치인 조계종 방문 '러시'

5·31 지방선거 앞둔 불심잡기 … 종지협 호소문 발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을 찾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3일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당 김근태 최고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하루 전인 2일에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관 스님을 만났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한나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도 일찌감치 다녀갔다.

이들은 저마다 불교계와의 인연을 내세우면서 불심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달라진 불교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는 하지만 하루에도 서너 명씩 무시로 찾아오는 정치인들을 일일이 응대하는 총무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진지한 고민과 준비 없이 정치인들의 홍보용 '사진찍기 예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찾아오는 후보들 마다 문화와 종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의례적인 격려로 중심잡기에 고심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유력 정치인의 예방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그러나 불교계가 자칫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실무자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최연 사무총장은 "선거철만 되면 유력 후보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스님이나 불자들의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오히려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을 계도하고, 사회나 불교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 천주교 등 7대종단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지관)는 최근 선거분위기가 일찍부터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9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사찰 · 부대 · 불교단체 힘 모아 법당 '우뚝'

경산 제2수교단 정심사 중창불사 낙성

군부대, 인근사찰, 지역불교단체 등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통해 군법당 중창불사를 회향해 눈길을 끈다.

화제의 법당은 바로 경북 경산에 위치한 제2수송교육단 호국 정심사. 1992년 후방 부대의 운전병 교육을 전담하는 제2수송교육단에 법당이 없어 장병들이 법회를 못 본다는 소식을 접한 부대 인근 사찰인 봉은사 주지 재윤 스님이 가건물을 기증해 지어졌다. 그동안 정심사는 안전 운행을 다짐하는 운전병 불자들의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수도 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예불을 올리거나 공양물을 씻지 못해 애를 먹었고 보일러 시설이 없어 겨울에는 추위를 이겨가며 법회를 보아야만 했다. 또한 누수, 누전 등의 위험으로 보수공사가 절실했다.

다행히 부대 안으로 대구부산간 신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공사를 맡았던 SK건설이 현장 사무소를 부대에 기증해 두달전 현재의 법당을 허물고 중창불사를 시작했다. 현장 사무소 건물을 그대로 옮겨와 120여평의 법당으로 개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중창불사를 시작하자 여기저기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 우선 수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대 외곽지인 법당까지 파이프를 매설했고 불단과 내부 인테리어, 보일러 시설, 법당 주변 환경 조성 등 운전 불자들이 법회를 볼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중창불사를 시작한 이후 정심사 신도회를 중심으로 모연에 들어가 부대 인근 대승사, 장엄사, 안흥사, 삼보사 등 많은 사찰과 2군사령부 호국 무열사 신도회, 연꽃선우회, 대구경북군불교진흥회, 수청건설, 라이프산업 등 후원으로 4월 29일 드디어 호국 정심사 낙성법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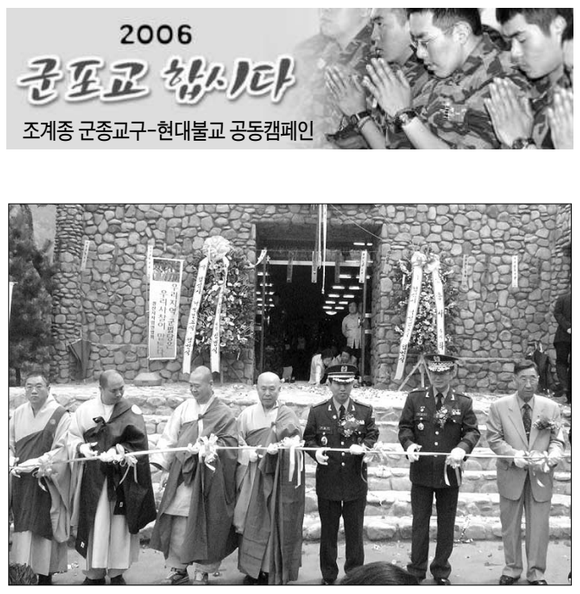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해 법당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봉은사 재윤, 석가사 경암, 은혜사 총무국장 혜종, 장엄사 주지 보광, 수정사 일륜, 삼보사 수현스님과 군종교구 정선진 상임위원, 호국 무열사 정상경 법사, 2군사령부 이근철 장군, 김병식 제2수송단장 유상준 예비역장군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였지만 법회 도중에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다. 다름아닌 호국 정심사 문춘자 상임지도법사와 이인환 유마회장. 장병들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법회를 볼 수 있고 새로운 법당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기 때문이다.

이날 낙성법회에서는 최경집 대구경북군불교진흥회과 문춘자 호국 정심사 상임지도법사가 조계종 군종교구 일면스님의 감사패를 정선진 상임법사로부터 받았고 최대열 호국 무열사 후원회장과 이인환 호국 정심사 유마회장이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으로부터 직접 감사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법당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이왕우 수청건설 대표, 박상헌 라이프산업 대표, 이용건 연꽃선우회, 박형용 상사, 염천호 상사가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호국정심사는 4월 29일 중창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선진 법사, 보광 · 혜종 · 지성 스님, 김병식 부대장, 이근철 · 유상준 장군.

한-일 비구니스님 '우의' 다진다

17일부터 日 선광사서 문화교류대회

한국과 일본의 비구니스님들이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일본에서 모임을 갖는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홍파 스님)는 5월 17일~21일,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나가노현 선광사(善光寺)와 유천사 등지에서 열리는 제 27차 한일불교문화교류 대회 기간 중 양국 비구니스님들의 활발한 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모색하기 위한 '제 1회 한일 비구니스님 친선우호 교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5월 18일 선광사 경내에서 열릴 이번 교류대회에 한국측에서는 명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을 비롯해 비구니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다카쓰카사 세이교오쿠 비구니회 회장 등 20여명이 모임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양국가의 비구니회 회가 두나라의 여성 불교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명성 스님은 "처음으로 양국 비구니계의 대표들이 모이는 만큼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현황과 발전사들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교류대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논의할 주제들을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는 '정토신앙'을 주제로 5월 18일 연세대 신규탁 교수와 일본 와세다대의 요시하라 고징 교수가 각각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산악인연합회 양춘동 총재 취임식

제6대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양춘동 총장의 취임법회가 5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봉행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다.

조용수 기자

운문사 유치원 '개교'

2008년 3월 125명 정원

경산시 사동에 건립추진 중인 운문사 부설 유치원이 5학급 125명 정원에 2008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5월 1일 최종 결정됐다. (본지 575호 3면 기사 참조)

운문사 총무 정호 스님은" 당초 요청한 11학급보다 훨씬 적은 5학급을 승인한 경산교육청 유아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유감이지만, 정식 개원 전까지 적정인원 확보와 양질의 교육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고침 본지 576호 봉축특집호 A15면 봉축법어 중 '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을 '대승종 종정직무대행 · 부종정 천광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신나는 찬불가 신나는 군생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군부대에 노래방기기 전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지난 4월 22일 찬불가 노래방 기기 1대를 31사단 호국 관음사(군법사 법망)에 기증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마음선원 신도회 최성휴 회장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불가는 그대로가 부처님 가르침이다"며 "찬불가로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국토방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법망 군법사도 "노래방 기기 하나로 엄숙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던 법당이 부드러워졌다"며 "향토사단 특성상 신병 훈련을 받는 장병이 많은데 그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찬불가 노래방 기기를 전달하는 모습.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보시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감탄하시였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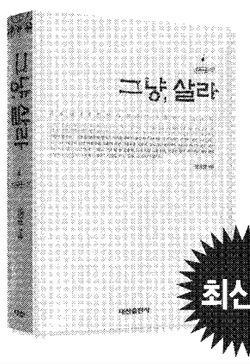
"봄이 그냥 오듯 꽃도 그냥 핀다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큰스님 44인이 들려주는 나를 깨우는 소리

법정 무비 성수 혜국 우룡 일오 원담 명정 인환 혜성 지종 대효 고산 지안 금산 대원 혜정 범룡 각성 정광 암도 지유 지관 수안 현산 혜남 명성 월운 고우 지옹 정천 묘엄 성타 묵산 월주 지환 천운 상륜 혜산 진철 혜거 정무 천룡 보성

장영섭 기자가 발로 뛰며 쓴 글은 불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 문외한이 읽어보아도 능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 글을 통해 불교의 요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이한 장기자의 글을 읽다보면 어느새 불교의 전문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생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뇌와 번뇌를 날려버릴 지혜가 구절마다 들어 있어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원택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저자)

그냥, 살라
장영섭 지음/336쪽/15,000원



최신간

www.ssdp.co.kr TEL:(02)3443-7233~4 FAX:(02)3443-2683 대산출판사

‘그날’ 까지 새로운 삶 ‘서원’

지관 스님, 사형수 5명에 수계


지관 스님이 서울 구치소 사형수 5명에게 계를 설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며칠 앞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근교의 낯선 건물 앞.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이날 누구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해 있었다.

이날은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진관 스님에게도 각별한 날이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관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강당에서 사형수 5명에게 계를 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이날 수계법회의 전계대화상 지관 스님은 “죄라는 것은 본래 없고 죄짓는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한번 잘못 일으키면 죄가 된다. 알고 저지르든 모르고 저지르던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씻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지관 스님으로부터 5계를 받은 사형수는 ‘덕륜’ ‘정광’ ‘법수’ ‘수월’ ‘정암’이다. 38세부터 51세까지 다양한 나이의 이들은 옥색 수의와 붉은색 수인번호가 아니면 한없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한때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흉악범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얼굴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형수를 이곳에서는 ‘최고수’라 부른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붉은 패찰에 수인번호를 새기고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이다. 삶과 죽음이 혼재된 이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종교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국내에 수감중인 사형수 63명의 종교는 개신교 32명, 가톨릭 18명, 불교 10명, 기타 종교 1명, 무교 2명 등으로 거의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무명구름이 걷히면 맑은 달이 비칠 것”이라며 ‘수월’이라는 법명을 받은 고병수(가명 · 41)씨는 7년 전 이곳에서 진관 스님과 처음 만났다. 한눈에 봐도 건장한 체구의 고씨는 평범하고 맑은 인상이지만, 한때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친 폭력범죄자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서울구치에만 2번 수감된 전력을 가진 진관 스님은 당시 사형수 고씨를 불교에 귀의하게 만들었다. 같은 사동에 있던 스님은 출소하던 날 새벽 조용히 고씨가 수감된 방에 염주와 불서를 전하고 사라졌다. 그 뒤로 인연은 계속됐고 지금 스님은 사형제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진관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만물이 한 몸으로 귀하다 가르쳐 주신 분이다. 지난날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 이들 만큼 선한 사람들이 없다. 당장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씨는 얼마 전 방송통신 과정으로 ‘포교사고시’ 과정을 마쳤다. 손재주가 남다른 그는 요즘 불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감옥 안에서는 마땅한 재료가 없어 말린 오징어에서 나온 대나무 막대기를 조각칼 삼아 비누를 깎아 불상도 만든다.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다면 평생 절에서 일하고 싶다”는 고씨는 “수형자들에 대한 불교계 관심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하다”며 아쉬워했다.

“이 안에서도 ‘지범개차(持犯開遮)’를 따져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엄격하다”며 “‘그날까지’ 불교를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됐다”고 말했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부처님오신날은 ‘나눔의 날’

조계사, 구청에 ‘자비의 선물’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사(주지 원담)가 종로구청에 훈훈한 ‘자비의 선물’을 전달했다.

조계사 주지 원담, 사회국장 범성 스님과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회장 등은 5월 2일 종로구청으로 김충용 구청장을 찾아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화상전화기는 종로구청과 창신동사무소, 효자동사무소, 서울농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며,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되는 750개의 선물세트에는 속옷 등의 생필품과 단주 등이 담겨 있다. 조계사는 또 ‘하악좌측 과두돌기 악관절 내장증’을 앓고 있는 박수진(14)양에게 치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동대부중 법당 확장 이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교장 박일상) 큰법당 개원 및 점안식이 5월 1일 봉행됐다.

법당은 교내 5층에 조성돼 있었으나 오래전에 지어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법당을 1층(면적 89.24㎡)으로 이전 할 것을 검토해 올해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법산(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화랑(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스님 등 25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은 “법당 개원으로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더욱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개운사 – 성북구사암련 경로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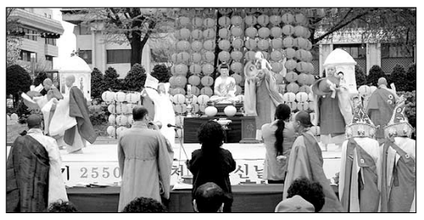
개운사(주지 공운)와 성북구사암연합회(회장 정수)는 4월 25일 성북구 지역 어르신을 초청한 가운데 개운사 경로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양주경찰서 경승위원회 봉축법회



양주경찰서 경승위원회는 5월 2일 경승실장 왕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일초 스님 인천수륙대재 봉행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 스님(삼계종 총무원장)이 4월 28일 전수생들과 이끌고 인천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일주문



‘석주스님’ 주제세미나 열어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5월 1일 ‘근 · 현대 한국불교의 산증인 석주 큰스님’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봉행했다.



국토수호 범국민결의대회

서울 삼광사 주지 일경 스님은 4월 30일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땅!’ 주제로 국토수호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 선암사 신도회장 취임

부산시 설동근 교육감은 4월 29일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선암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들 근골격 · 소화기계 질환 많아

방석 5cm 높이고 따뜻한 음식 섭취해야

경희의료원 불자회 스님 175명 진료결과 분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으로 알려진 수행. 하지만 잘못된 수행 자세와 식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경희의료원불자회(회장 권혁운, 이하 경불련) 진료봉사팀은 지난해 6월 모 사찰의 스님 175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 결과를 토대로 49%(79명)가 발목관절, 무릎관절, 요통, 어깨통증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으며 23%(40명)는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한 사찰의 진료기록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무리한 참선 또는 참배나 생식 등의 ‘거친 생식’을 위주로 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신경계질환 12명(7%), 허약 8명(5%), 호흡기계 7명(4%), 비뇨기계 6명(3%)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고혈압(경계성 고혈압 포함 49명)이 저혈압(3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치는 67%가 정상으로 나왔으며, 당뇨 기준에 해당하는 고혈당은 10%(18명)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료진은 “참선 시 가부좌를 취할 때 척추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석을 5cm 정도 높이고, 일정 시간 참선 이후에는 몸을 서서히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근육을 이완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소화기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생식 위주에서 벗어나 소화흡수가 잘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들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차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말고, 자신이 마시는 차가 체질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혈압의 경우 본래 혈압이 높은 본태성 고혈압이 주원인인 것으로 의료진은 해석했으며, 저혈압 환자의 경우 호두, 잣 등의 식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김덕곤 교수는 “30분 정도 참선한 후 5~10분간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참선 과정에서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수행자를 위한 건강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스님들도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불회 진료봉사팀은 스님들을 위한 무료 진료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찰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목탁소리

‘서울 연등축제’ 견학왔어요

연등축제가 열린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우정국로에 경남 차량번호판을 단 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합천 연호사 신도 46명과 주지 진각 스님이 탄 버스였다. 이들은 왜 바쁜 농사일과 봉축준비를 접어두고 서울나들이에 나선 것일까.

불교문화마당 부스들을 돌며 관람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한 연호사 신도들은 마냥 즐거운 듯 웃음을 달고 다녔다. 신도들은 동대문운동장의 어울림마당과 봉축법요식에도 직접 참가했고, 제등행렬의 장엄한 물결도 끝까지 지켜봤다.

신도들에게 이날 체험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주지 진각 스님이 신도들에게 주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선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도들은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내용의 연등축제를 보고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었으니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을 것이었다.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어떻게 축하하는지 신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는 진각 스님은 이제 신도들이 합천에서도 이런 축제를 열자고 제안하지 않을까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박봉영(취재부 기자)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납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한함을 얻을 수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운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 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 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 : 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 천 암 주소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 055)356-2040, 011-867-4747

대화와 존중으로 상생의 지혜 찾자

종교 자체로 보지 말고 '인간관계 문제'로 접근해야

"내 종교만 우월" 생각부터 버리길

가정 내 종교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최근 '현대불교'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울 은평법당에 다니는 한 불자가 은평법당 사이트에 올린 '아들이 교회 간다고…' 글은 청소년 포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과 함께 가정 내에서의 가족간 종교 차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종교 차이는 자칫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고 심각한 가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가정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종교 갈등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가정 내 종교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사소한 차이가 갈등의 '핵'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 내 종교 갈등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가정 내에서의 일상적인 다툼과 반목에서부터 크게는 상해와 가정 파탄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는 심각하다. 실제로 각종 상담기관 관계자들은 가정내 종교갈등 문제로 상담해 오는 경우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한다.

가장 심각한 종교 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다. 가정 파탄은 물론 가족 간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의동의 A(33)씨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독실한 불자인 A씨 어머니는 며느리가 개신교 신자인 것을 알고 결혼을 만류했었으나,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속담대로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부터 일이 터지고 말았다. 결혼식 주례가 목사였고, 결혼식도 개신교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던 일인지라 A씨 어머니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항의를 하자니 결혼식을 망칠 것 같고, 참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다. 양 집안의 종교를 존중해 종교적 의례는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진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항의를 했지만 말 그대로 '항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나긴 갈등의 시작에 불과했다.

결혼 뒤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A씨 부부는 종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양가 마찰로 이어지면서 확대됐다. 평소 사위와 사위 집안이 불교집안이라는데 불만이 컸던 A씨의 장모는 A씨가 술에 만취해 늦게 귀가해 딸과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때리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유치장 신세를 져야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양가는 대판 싸움을 벌였고, 결국 이혼 얘기가 오갔다. 하지만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안 A씨 가족은 결국 한 발 물러섰고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렇지만 이 일을 겪고 난 A씨 부부는 지금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살고 있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종교가 다르면 '제사' 모시는 문제도 갈등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 3년전 결혼한 B(37)씨와 부인 C(35)씨는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다. C씨는 시어머니의 제사준비가 '강요'로 다가온다. C씨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이다.

어릴때부터 단 한차례도 제사를 지낸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C씨에게는 부담이다. 제사문제로 생긴 고부갈등에 남편 B씨도 답답하기만 하다.

부모자식간의 갈등도 심각한 경우가 많다. 대학을 갓 졸업한 D(25)씨는 친구들의 권유로 사찰 청년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시작한 신행생활이지만 다른 처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어 누구보다 더 열성적으로 절에 나갔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딸이 절에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은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가정이 파탄난다"며 절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분들이다. 계속되는 부모님의 '꾸중'에 D씨의 고민은 깊어간다.

인생의 새출발을 앞둔 젊은 연인들에게 종교 갈등은 악재가 되고 만다.

최근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E(28)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E씨 집안 종교는 불교였으나 남자친구는 가톨릭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E씨는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성당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불교로 개종시킬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황선정 사무국장은 "가족 간의 종교 갈등 해결을 호소하는 문의가 자비의전화나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불자들의 경우 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 가정 내 종교 갈등은 필연?

이와 같은 가정 내 종교 갈등은 종교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또 가족 각자의 종교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도 종교 갈등의 한 원인이다.

2004년 한국갤럽이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통계를 보면 가정 내 종교 갈등은 상존(常存)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은 53.5%로서 20년 전인 1984년의 종교인 비율(43.8%)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불교인 24.4%, 개신교인 21.4%, 가톨릭인 6.7%, 기타 종교인 0.9%, 비종교인 4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구성원간의 종교일치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설문응답자와 부친과의 일치율은 50.5%, 모친과의 일치율은 62.0%, 배우자와의 일치율은 70.9%로 드러났다. 각 종교별 일치율을 보면 불교인의 경우 부친 73.8%, 모친 80.6%, 배우자 74.4%, 개신교인 부친 47.4%, 모친 59.7%, 배우자 67.4%였다. 가톨릭인은 부친 28.9%, 모친 49.2%, 배우자 70.9%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라면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가정 내 갈등의 차원에서 보면 안심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갤럽 이동욱 전문위원은 "가정 내에서의 종교일치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그렇지만 아직도 종교일치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내 종교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호 배려하는 마음이면 충분

이와 같은 가정 내 종교 갈등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송기홍 변호사(前 서울가정법원장)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 하다.

독실한 개신교 집안 출신의 부인과 결혼한 송 변호사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가를 방문했을 때부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그러나 불교를 종교로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또 "결혼 후 어머니는 며느리 절에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장모님은 사위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었다"면서도 "서로가 절이나 교회에 갈 때는 남은 사람이 가사를 담당해주면서 배려의 폭을 넓혀 왔다"고 '노하우'를 소개했다.

한별정신병원 최훈동 원장도 부인과의 종교 차이를 넘어선 경우. 최 원장은 "가족 공동의 생활에서는 각자의 종교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며 "가정 내 종교 갈등은 종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만 있다면 종교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은 "종교 갈등 해소에 왕도가 있겠느냐?"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산 스님은 "다른 가족이 신앙하는 종교의 기념일에 절이나 교회, 성당에 함께 가서 서로 축하해주는 것이 상호 이해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신교 상담기관인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도 "가정 내 종교 갈등 해소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종교가 다른 가족의 종교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갈등 상담소	
한별정신병원	(031)986-9900
자비의 전화	(02)737-7374~6
생명의 전화	(02)763-9195
한국가정상담연구소	(02)567-8690
조계사 신행상담실	(02)735-1040
봉은사 새신자 전법부	(02)516-5651
구룡사 진리의 전화	(02)573-8072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02)754-5631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봉 불기2550년 부처님 오신날 축

양주 경찰서 경승위원

실 장 자재암 왕산
부 실 장 중화사 용하

위 원 대승사 귀영 천마사 청호
보문사 정오 보현사 석정
세광사 법화 석굴암 도일
지장사 원돈 반야사 청일
금륜정사 덕현

경승실 후원회 각사암 불자모임 일동

경기 양주시 회정동 84-7번지 양주경찰서 4층 경승실 ☎ 031)857-7755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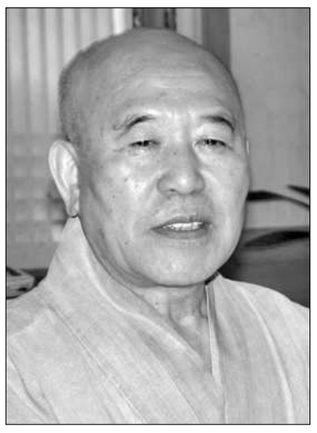
삼보에 귀의하옵고,
지난 4월 15일부터 열흘간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렸던 주지 오봉 도일스님의 선묵 서화전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우선 지면을 빌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회주 밀운 큰스님, 주지 철안 큰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큰스님, 포교원장 도영 큰스님을 비롯한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보도와 후원을 통해 이번 전시회를 널리 알려주신 일반 및 불교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양주 오봉산 석굴암 신도회장 김 원 식 합장
전시준비 위원장 진 욱 상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번지 031)826-3573 / 팩스 031)826-5838

“불자 기르고 경전도 보급”



interview 몽골불교 재건 나선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6월 중 유치원 건립 시작
의료봉사팀도 파견 예정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한 몽골선수단을 후원하면서부터 결성된 (사)몽골불교교류협회는 4월 25일 ‘몽골불교 진흥을 위한 후원의 밤’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협회장 지성 스님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가동될 단계라며 향후 몽골불교 지원사업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비쳤다.

▲‘몽골불교 진흥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게 된 취지는?

-몽골은 전통불교국가지만 70년간 공산치하에 있으면서 사원이 불타고 2만여 승려가 학살당하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또, 1992년 해방을 맞았지만 기독교가 들어와 극성을 부리는 통에 몽골의 문화와 전통신앙역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 유치원이 몽골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몽골불교계는 2세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건립과 몽골경전 보급을 위한 인쇄소 건립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몽골불교진흥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800여명의 지역 불자들이 동참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 1억5천만 원을 웃도는 기금이 모였습니다. 수용인원 50여명 규모의 유치원 건립에 소요되는 약 2억 원의 예산에는 못 미치지만 유치원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은 될 것으로 봅니다.

▲행사에는 몽골스님들도 동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사 불교대학장 밤브쟈브 스님과 총무원 비서실장 에르탱후 스님, 불교대학 교수 강호익 스님이 참석해 상호 지원협약을 맺었습니다. 스님들은 행사 이후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등을 순례하고 서울에서 몽골 근로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법회도 가졌습니다. 또, 불교유치원을 견학하고, 서울 연등축제에도 참석했는데, 우리불교의 전통문화를 많이 보고 배웠을 겁니다.

▲몽골불교재건은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6월 중에 유치원 건립공사를 시작하고, 이를 기념해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영남대 의대 불교회와 함께 몽골의료봉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몽골건국 800주년 한몽수교 15주년을 맞는 해여서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유치원은 한국 건축설계사의 도움으로 몽골실정에 맞되 우리나라의 선진기술을 접목시켜 건립하고, 우리의 선진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최상의 유아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성 스님은 “주지 임기동안 잘 따라준 지역불자들이 고맙다”며 “후임 주지스님이 젊고 능력이 있어 동화사가 대구는 물론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나도 동화사의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성 스님은 주지 소임 4년간 백고좌법회, 화엄논강, 담선법회, 계율수행대법회 등 매년 대형 법회를 개최해 동화사의 위상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지선 기자

6대종교 지도자 함께 ‘3배’

부산 여여정사서 ‘…작은 음악회’



‘공동선 실천 부산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한 지도회 및 작은 음악회가 5월 2일 여여선원(주지 정여)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협의회 회장 정여스님과 온천 성당 조용걸 주임신부 성균관부산시유도회 신준성 원장 원불교 남궁원 교무 등 6개 종교 지도자와 신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제1부 기도회에 이어 펼쳐진 작은 음악회는 정여 스님이 직접 쓴 축시 ‘평화 그리고 자비’ 낭송으로 시작, 불자들의 합창과 원불교 교무 중창단 공연, 플룻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감미로운 음악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자 종교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손에 손을 잡고 ‘만남’과 ‘사랑으로’를 합창했다(사진).

종교지도자들은 여여선원 법당에서 다 함께 3배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정여스님은 “차와 시와 음악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자비와 평화”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단신



영축사 약사여래불 봉안

양산 영축사(주지 각문)는 5월 1일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인 각현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이날 점안법회는 1부 점안의식에 이어 신도대표의 육법공양, 발원문, 각현 스님 법문순으로 진행됐다.

영축사는 이날 점안의식과 함께 티베트에서 가져온 만다라전시회 개막식을 함께 열었으며 향후 만다라 전시장을 상설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노인복지관들 어버이날 행사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과 마산 금강노인복지관(관장 곽인철)은 5월 3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복충전 100%’와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를 개최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도구노인복지관의 경로잔치에는 지역 어르신 600여명이 함께 했다. 금강노인복지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8일 금강노인나들이 행사를 경남 수목원으로 다녀올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대구경북 장애인 축구대회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6월 2일 풍기 대한광복공원 잔디구장에서 제4회 대구 경북지역 정신지체 장애인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4번째 개최하는 대회다.

올해는 구미, 경북, 경주 등 대구경북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구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상주보호작업센터, 대구 대동시온재활원 등에서 400여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기관별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054)533-6415 배지선 기자

해인사 3년간 가사불사 봉행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스님들께 가사를 공양하는 ‘가사불사’를 5월 22일부터 3년간 봉행한다. 가사불사는 총무원으로부터 위임받아 비구니회 임원회의에서 결정 합의된 가사천을 사용하고, 색상과 삼보륜은 의제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해서 비구니회에서 직접 제작한 것만을 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해인사 원로 대덕 스님들과 종무소 소임자 스님, 선원 과율원, 강원 스님께도 봉헌될 예정이다. (055)934-3105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학 경로잔치

영남불교대학(회주 우학)은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이사장 박원곤) 주관하에 4월 29일 봉축 경로잔치를 벌였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온 18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은 가슴 가슴마다 카네이션을 꽂고 영남불교대학 불자들의 재롱 속에 어린 아이같은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 했다.

옥불보전 대법당에서는 TBC 이현도 MC의 사회로 한길수 불자의 회심곡 공연, 방송인 한기웅 씨의 걸죽한 입담과 노래공연, 전문마술가 김성진씨의 마술쇼등이 펼쳐졌다. 또, 앞마당에는 연세안과의 무료진료와 영정사진촬영이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화엄사, 농업회생기금 전달



구례 화엄사 대중 스님들이 지역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에 직접 나섰다(사진).

지난달 구례 농민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화엄사(주지 종삼)는 지난 4월 30일 구례 상사마을 현지에서 못자리설치 울력을 했다. 화엄사는 구례 농민회가 공동 경작하는 3만평규모의 농사일을 함께하며 수확된 농산물 판매까지 후원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재소자 지역불자 함께 ‘즐거운 하루’

청주교도소 교화위문공연

본사 대전충북지사(지사장 혜철)와 충북청원 석문사(주지 혜전)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공동 주최한 청주교도소 교화 위문 공연이 5월 2일 재소자 400여명과 지역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됐다(사진).

충북 종교인 사랑의 릴레이 행사로 지정된 이날 공연에서는 직지 홍보단 가수와 불교계 합창단, 스포츠댄스 공연단 등이 한 것 끼를 발산하며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희망의 무대를 선물했다. 석문사가 준비한 떡 등의 공양물에 대한 답례로 재소자들이 직접 만든 연등과 모형탑 등을 공연단에 전달할 때는 숙연한 분위가 연출되기도 했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송광사 사천왕상 · 복장유물
불갑사 불복장물 등 보물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조계총림 송광사 사천왕상을 보물 제1467호로 사천왕상 복장유물(보물 제1468호), 영광 불갑사 불복장전적은 보물 제1470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송광사 천왕문에 자리한 소조 사천왕상은 총 4구로 1628년(인조 6년) 조성됐다. 사천왕상 복장유물은 지난해 해체 보수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로 전적 12종 14책, 인본다라니 383장, 후령통 등으로 고려말 · 조선초 유물이다.

불갑사 불복장전적(일괄 3건 259점)은 16나한상복장전적 101점, 지장보살상 · 시왕상복장전적 112점, 사천왕상 복장전적 46점 등이다. 문화재청은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등 5건에 대해서도 보물 지정을 예고했다. 이준엽 기자

외국인근로자 위안 잔치 개최
마하부다 구미 보현의 집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마하부다 구미보현의집(대표 진오)이 4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처럼 고국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예술봉사단의 전통무용과 강준영 국악원장의 국악 레크레이션 및 대금연주, 말뚝이 놀이패의 풍물공연 등 다채로운 봉축공연을 즐겼다.

배지선 기자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0> 공부는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게

간절할 때 공부할 마음 생겨
너무 조급하면 들떠 병 초래

오늘 이야기할 단락을 보니 지난해 번역 출판한 <거드름 피우는 우마왕>이란 제목의 어린이 동화책 내용이 생각난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서유기>에 나오는 '우마왕'인데 어느 날 그는 검술을 배우려고 무아(無我) 선사를 찾아간다. 검술의 달인이었던 무아 선사가 제자로 받아들이자 우마왕은 크게 기뻐하며 예를 올린 뒤에 물었다.

"스님, 검법을 다 배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공부하면 십 년은 걸린다."

"앗! 십 년이나요? 다른 일도 하면서 배우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게으름을 피우면서 공부하면 이십 년은 걸릴 거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연습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삼십 년도 더 걸릴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검술 연습이나 스님들의 수행이란 급하지도 않고 더디지도 않아야 제대로 공부하는 게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습하면 반드시 몸과 마음이 망가질 테고, 결국 지팡이에 기대어 연습해야 될 걸."

화두 공부를 할 때 작고 연약한 모기가 무쇠 소의 몸을 뚫듯 공부하라 하니, 요즈음 선방에서 그대로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때 유행처럼 번지던 백일 용맹정진이니 천일 용맹정진이니 하는 것들이 그런 예이다. 열흘이나 백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며 공부에 집중하는 수행자들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러나 화두공부란 선지식의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믿음'과 '원력'과 '의심덩어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간절하게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들떠서 흐트러지지도, 머리가 무거워져 몽롱해지지도 않는다. 선(善)도 뛰어넘고 악(惡)도 뛰어넘으며 무기(無記)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생사를 깨치지 못할까 근심할 일도 없다.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게 여겨야 할 말이다. 간절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선가귀감>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工夫如調絃之法 緊緩得其中
勤則近執着 忘則落無明 惺惺歷歷 密密綿綿

공부는 마치 현악기의 줄을 고르듯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게 해야 한다. 공부에 너무 애를 쓰면 집착에 가깝고 공부를 잊어버리면 어두운 세상에 떨어진다. 마음이 깨어있는 또렷한 의식으로 끊임없이 차근차근 공부를 챙겨가야 한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소오나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공부에 진전이 없고 깨치지 못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고 불러 물으셨다.

"네가 출가하기 전에 거문고를 타본 일이 있느냐?" "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거문고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떤 소리가 나오더냐?" "날카롭게 끊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너무 느슨하게 해 놓으면 어떤 소리가 나오더냐?" "소리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리가 잘 나올 수 있느냐?" "줄을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게 해 놓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다. 공부도 그와 같다. 공부를 너무 서두르면 들떠서 병이 나기 쉽고, 너무 늦추면 게을러져서 공부에 진전이 없다. 그러니 공부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된다. 평소에 꾸준히 정진해야만 한다."

소오나는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 날부터 거문고의 줄을 고르듯이 공부를 꾸준히 해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잡아함경> 9권 <이십억이경(二十億耳經)>에 나온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거문고 타는 사람은 거문고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아야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화두 공부도 이와 같다. 공부에 마음이 너무 조급하면 병이 생기고 공부를 잊어버리면 깜깜한 귀신 굴에 들어가게 된다. 공부를 너무 늦추거나 서둘지 않는 가운데 오묘한 깨달음이 있다."

화두 공부를 할 때에는 먼저 공안을 점검하고 의심이 생기면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화두를 챙겨가야 한다. 공부하는 마음이 너무 급하면 몸에 흐르는 기운이 고르지 못하여 병이 생기기 쉽다.

억지로 힘을 써서 화두를 챙기는 것은 공부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 움직이든 가만히 앉아 있든 의심하는 공안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꾸준히 공부해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공부의 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선남선녀(善男善女)

"오늘 선남선녀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선남선녀(善男善女)입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착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지요. 불교사전 뿐만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이 같은 뜻으로 선남선녀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남선녀는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선남자선여인(善男子善女人)'의 줄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선(善)은 선인(善因)이니, 지난 세상에 지은 선사공덕(善事功德)이 현세에 나타나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믿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생(現生)에서 불법을 믿고, 선을 닦는 남녀'를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명호를 듣고, 염불하는 남자와 여자'를 나타냅니다. 불교 집안에서는 보통 '죄악이 많은 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고, 염불하면 곧 선남자·선여인이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임에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 '신사 숙녀, 여러분!' 대신 '선남선녀, 여러분!'하면 어떨까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1강 <기신론>도 <금강경>과 같은 얘기를

세상은 온통 이미지로 범람

선거가 다가오면서 또 '이미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어디 정치판만일까. 세상이 온통 이미지(虛妄)로 넘쳐나고 있다. 매스컴과 권력,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양상은 더욱 극성을 띠고 있다. 원본과 복제의 구분이 없어졌고, 짝퉁이 진짜를 뺨치며, 창작과 표절을 가르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상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불교가 고구정녕 깨우치고자 하는 바이자, 동서양의 오래된 전통이 공히 가르치는 삶의 지혜이다.

1. 이미지의 그물로서의 세계(三界唯識)

우리가 보는 세상, 즉 이미지들은 욕망의 흔적이고, 자아의 그림자이다. 불교는 그 투영의 이미지(相)에 붙잡히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거듭거듭 타이른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그것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숲 속에서 동물들이 우르르 달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사슴이 달리니 토끼도 달리고, 말이 달리니 호랑이가 달렸다. 코끼리며 공룡까지 달렸나 싶다. 한참을 달리다가 숨을 돌린 다음, 왜 이렇게 달리는지 진원지를 찾았다. 다람쥐 한 마리가 최종적으로 일어서서,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찾아가보니, 거기 망고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라. 보이는 이미지, 전하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눈, 기(氣)의 교감으로 그것들을 허파, 간파(看破)해야 한다. 부처님의 '바른 눈(正眼)'이 왜 우리네와 달리 이마 한 가운데 박혀 있는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주인공(主人公)의 화두 서암화상은 말한다. "서암 이놈, 알지! 지금부터는 절대 남의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 알겠냐?" 스스로 다그치고 다시 스스로 다짐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묘한 일인극의 화두가 전해주고자 하는 바는 명백하다. 더 이상 거대한 환상에 속아 살지 말라는 것 그것이다.

그래도 남한테 속지 않기는 쉽다. 자신에게 속지 않기가 훠얼씬 어렵다. '안'으로 인간은 자기 욕망과 편견의 노예이고, 또한 '밖'에서 온 관습과 의견에 지배되는 존재이다. 거기 무슨 '나'가 있고, 거기 무슨 '자유'가 있는가.

그래서 회광반조,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결정적이고, 명상과 좌선이 그토록 절실한 것이다. 불교는 역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기보다, 더욱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종교이고, 철학이다.

2. 왜 여래를 눈으로 볼 수 없는가

<금강경>의 눈은 말한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佛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혜능은 이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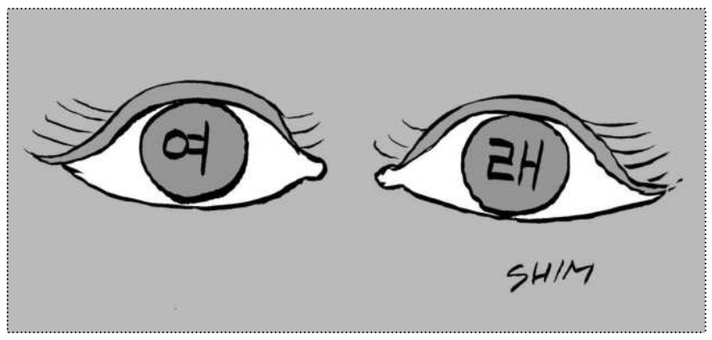
如來欲顯法身故, 說一切諸相皆是虛妄. 若悟一切諸相虛妄不實, 卽見如來無相之理也.

"여래가 법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일체의 제상(諸相)이 모두 허망(虛妄)타고 설한다. 만약 일체의 제상이 허망할 뿐, 알맹이가 없는 것을 깨닫는다면, 즉, 그는 여래가 무상(無相)이라는 이치를 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시리라고 믿는 그 '여래'는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한다. 그것은 재산이나 지위, 권력 등 이른바 3P(Property, Prestige, Power)와는 다른, 미학적 정신적 가치에 해당한다.

여기 함정이 있다. 물질보다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더 고귀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물질의 우상보다 정신의 우상이 더 위태롭고 위험하다. 진리의 이름으로 특정 종교를 독단화하는 사람들, 정의의 이름으로 특정 이념을 기치로 내거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피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작게는 '마땅히'의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저지르는 설교와 강요의 미시적 폭력들을 섬세하게 경계해야 한다.

불교는 진리를 '우상'으로 권력화하고, '소유'로 소외시킬까봐, 여래를 희망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를 보자기에 숨겨버린다. 이 "쓰고 지움(sous rature, under erasure)"이야말로 <금강경>이 베푸는 위대한 노파심이다.



이 논제는 <금강경> 전편을 통해 계속 반복 연주된다. 나중에 다시 다룰 것이다. 이 테제는 해체론자 데리다와 하이데거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게 <금강경>은 여래의 이름을 썼다가 지워버렸다. 기억하라. "여래가 인간의 몸을 하고, 위대한 자의 표징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바 범부들은 이 선언에 경악한다. 다음 6장에, 그 경악과 의혹이 이어진다. "대체 이 말을 경건한 불교도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어쨌거나 사다리는 치워졌다. 이제 무엇으로 우리는 '그'를 만날 것인가.

난감한 우리 앞에, 문득, 야부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且道. 卽今行住坐臥是甚麼. 休瞌睡. 身在海中休覓水. 日行嶺上莫尋山. 鶯吟燕語皆相似, 莫問前三與後三."

3. <기신론>도 <금강경>과 같은 소식을

함허득통은 이 설법이 또한 <기신론(起信論)>의 소식임을 증거했다. 좀 까다롭지만, 인용 번역하여, 한문 불교의 읽는 맛을 제공하고자 한다.

說誼: 非但佛身無相, 但是一切凡聖, 依正有爲之相, 盡是虛妄, 以從妄念所變現故. 妄念本空, 所變何實. 故<起信>云, 一切境界, 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心念則無一切境界之相. 若見諸相等者, 遮離色觀空也. 恐聞相是虛妄, 又別求無相佛身, 故云相卽非相, 便是如來. 不唯佛化身無相, 是如來所見一切相皆無相卽如來也. 故<起信>云,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 卽是如來平等法身.

"비단 부처의 몸이 무상(無相)일 뿐만 아니라, 일체 범부와 성인들에 대해, 이래저래 설정(有爲)한 이미지(相)들은 모두 환상이고 가짜이다. 모두가 망념(妄念)에 의해 불려나온 의식의 변형물이기 때문이다. 망념은 본시 실체가 없는데, 그 변형물에 무슨 가치를 부여할까.

"그래서 <기신론>은 말한다. '일체의 경계(境界)는 오직 망념에 의지해서 생긴 차별(差別)이니 만약 심념(心念)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의 상(相)이 없어진다.' 제상(諸相)이 결국 실질 구분이 없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때, 색을 차단하여 그것을 떠나 공을 보기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 상(相)이 허망하다는 것을 듣고는, 이제 무상(無相)인 불신(佛身)을 따로 구할까봐, 다시 말했다. '상이란 즉 상이 아니니, 그래서 여래이다.' 부처의 화신(化身)만이 무상(無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래가 본 일체상이 모두 무상인 즉, 그래서 진정 여래라고 한다. <기신론>은 말한다. '지금 말하는 각(覺), 즉 깨달음이란 심체(心體)가 념(念)을 여읜 것을 일컫는다. 념(念)의 상(相)을 떠나면 허공계와 같으니, 이것이 여래의 평등법신(平等法身)이다.'"

– 하여, "여래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섭섭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여래는 늘 여기 있다. 다만, 그대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행주좌와 속에, 그리고 내가 '하나'로 믿고 있는 이 연대 속에 여래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역사와 전통에 탄성

'동국대 건학 100주년 특별전 國寶展' 열리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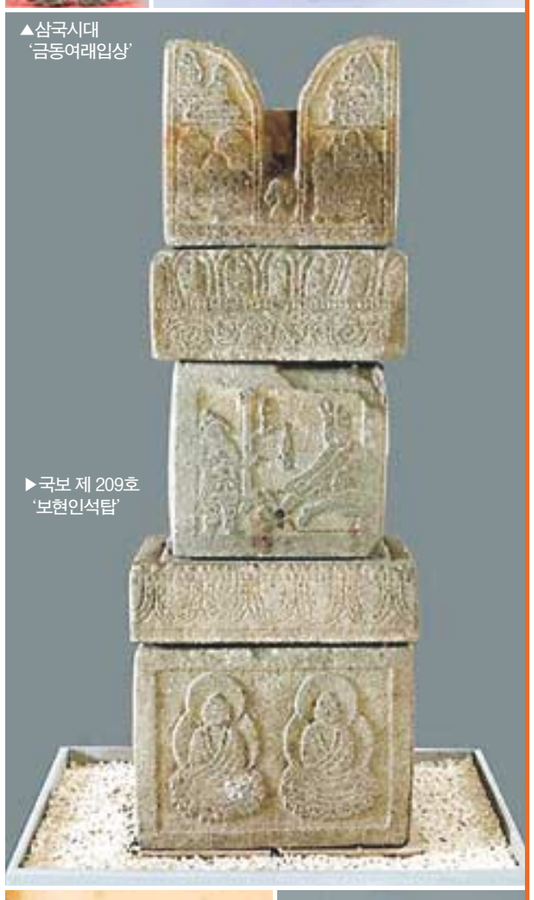
동국대 '국보전' 이 5월 2일 개막됐다. 사진 왼쪽부터 동국대 정우택 박물관장, 홍기삼 총장, 춘광 천태종 감사원장, 조용길 불교학과 교수.





보물 제321호 '지정 4년명 청동은입사 향완'

▲삼국시대 '금동여래입상'



▶국보 제 209호 '보현인석탑'



국보 제176호 '청화백자<홍치명>송죽문호'



보물 제471호 '민애대왕석탑사리호'



용현사 영산회상도로 애워싸인 동국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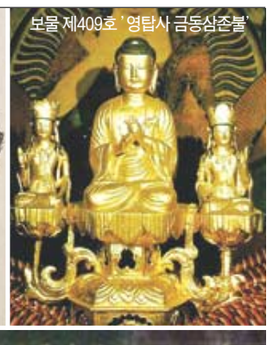
국보 보물 25점 … 6월 9일까지 전시
능엄경, 보현인석탑 등 일반인에 첫 공개
예술 · 학문적 가치 높아 학계 비상한 관심
박물관 에워싼 영산회상도 눈길 사로잡아



실상사 동종을 보고있는 일반 관람객



보물 제743호 '정조대왕어필파초도'



보물 제409호 '영탑사 금동삼존불'



보물 제740호 '감지은니보살선계경'



조선후기 '석가여래설법도'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 권 23, 24'



국보 제212호 '수능엄경'



'소조 나한상'

경' 또는 '수능엄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당나라의 반자밀제(般剌密帝)가 번역하고 계환(戒環) 스님이 해설한 것을 세조 8년(1462)에 10권 10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한 이후 목판으로 찍어낸 판본이 완전하게 남아 전해지는 유일한 서적이다.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최초로 간행한 한글 해석판으로 편찬 체제와 글씨를 대자 · 중자 · 소자로 구분하여 쓰는 방법 등은 뒤에 간행되는 국역판의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국보 제209호 '보협인석탑(寶篋印石塔)'도 동국대 박물관이 자랑하는 성보문화재다. 원래는 천안시 북면 대평리 탑골계곡의 절터에서 무너져 있던 것을 수습해 현재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해 놓은 것으로 탑신에 부처님 전생 설화가 새겨진 우리나라 유일의 보협인탑이다. 보협인탑은 <보협인다라니경>을 안치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고려시대때 교류를 했던 중국 오월국에서 유행했던 탑이다.

국보 제176호 '청화백자<홍치명>송죽문호(靑華白磁<弘治銘>松竹文壺)'는 지리산 화엄사에서 전해져 왔던 유물로 2번이나 도난 당했던 것을 찾아 동국대 박물관으로 옮겨 놓은 불운의 문화재다. 원래는 2점이 한조를 이루는 백자였지만 도난을 막으려다 한 점은 파손됐고 더 이상의 파손을 막기 위해 화엄사에서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조선 성종 20년(1489)에 만들어진 청화백자 항아리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그려져 있으며 조선 전기 도자사 연구의 표준이 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조선 정조대왕이 직접 그린 보물 제743호 '정조대왕필파초도(正祖大王筆芭蕉圖)', 보물 제741호 '민애대왕석탑사리호(敏哀大王石塔舍利壺)', 보물 제321호 '지정4년명고려청동루은향로(至正四年銘高麗靑銅縷銀香爐)', 삼국시대 '금동 여래 입상', 조선 후기 '소조나한상', '실상사 동종', 조선후기 '석가여래설법도' 등도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다.

동국대 도서관에서 소장해왔던 전적류도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국문활자본인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釋譜詳節)',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있는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月印釋譜)', 보물 제390호 광덕사고려사경(廣德寺高麗寫經), 보물 제740호 '감지은니보살선계경<권8>(紺紙銀泥菩薩善戒經<卷八>)' 등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자료들이다.

외부 대여 작품 가운데는 2층 전시실에 전시되고 있는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 관음보살도(觀音菩薩圖), 마리지천도(摩利支天圖), 지장삼존도(地藏三尊圖) 등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 불화 8점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고 국보 제208호 '금동육각사리함(金銅六角舍利函)', 보물 제409호 '영탑사금동삼존불' 등도 일반인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은 문화재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개막일인 2일 전시장을 찾은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동국대는 그동안 미술사학분야의 대가들을 수없이 배출해왔고 문화재 조사, 수집 등은 물론 기획 전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특별전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은 다량의 문화재들이 전시되고 있어 동국대의 역사와 전통에 손색이 없는 전시인 것 같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02)2260-3462

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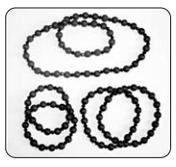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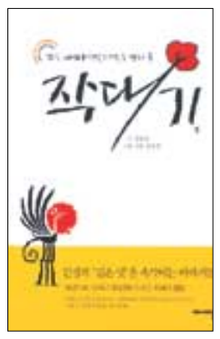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동서고금 선현들이 남긴 지혜



힘들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줄 작대기
장용철 지음
여시아문
9000원

'인생을 가장 빨리, 후회없이, 기쁨속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작대기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끝이 갈라진 긴 나뭇가지를 다듬어 만든 작대기는 지게를 받치는데 쓰인다. 무거운 등짐을 진 농부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쉴 때 농부를 대신하여 지게를 받쳐주는 작대기는 지게와 한세트이며, 농부의 길잡이도, 악기도 되는등 친근한 벗이다.

농부의 손에서 길이 잘들어 까맣게 손대가 묻은 작대기처럼 고단한 인생길에도 무거운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 책 <힘들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줄 작대기>에 실린 얘기들은 지게를 받쳐주는 작대기처럼 동서고금의 선현들이나 이름없이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작대기처럼 짚다가 남겨놓고 간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헛간 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받쳐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갈등의 문제는 대부분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발생합니다.

자기중심의 사고로 판단하므로 가족갈등, 사회갈등, 이념갈등등 모든 불화가 발생합니다.

개구리는 연못이 운동장이고, 올빼미는 밤이 낮이고, 구더기는 똥이 천국이고, 지렁이는 땅 속이 갑갑하지 않습니다.

때로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릴 때 닫혔던 문도 열리고, 함께 사는 길도 열립니다.'

'지렁이는 갑갑하지 않다'는 제목의 이야기다. 이 꼭지는 이미 지하철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 게시판에

> 지하철 풍경소리 작가가 고단한 인생살이에 지친 현대인에게 들려주는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

실린 것이다.

저자는 지하철 구내에서 인생에 대한 사색이 가능하게 하는 짧은 글로 긴 감동을 느끼게 하는 풍경소리 게시판의 작가로 활동해왔다.

68편의 글은 삶을 살아가는데 보배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오묘한 인생처럼 모범답안을 주지는 못한다.

저자는 "작년에 매화꽃을 피운 매화나무 가지에 올해도 매화가 피지만 그 꽃들은 지난해의 꽃들이 아니다. 다만 매화가 매화로 되기까지의 무량한 과거와 다시 매화로 흘러가기 위한 무수한 시간이 그 꽃속에 강물처럼 잠겨 출렁인다. 그렇듯 과거와 미래를 다 뭉뚱그려 담고,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말한다.

다만 저자는 "이 책이 모든이들에게 매화나무 작대기였으면 하는 한다"는 바램은 숨기지 않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정병례씨의 판화 '함께 사는길'

선방, 베일 벗다

전국 26개 선방의 구도열기

시민선방을 비롯한 각종 수행공간이 늘고 있지만 스님들의 수행처인 선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 닫힌 공간을 찾아 떠나는 책이 나왔다. 바로 한국경제신문 서화동 기자가 쓴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가 그것.

서 기자는 전통적인 수행방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전국 100여개 선원중 25개 선원과 파리 사자후 선원까지 총 26곳을 직접 방문해 선의 기운이 펄펄 살아있는 구도현장의 치열한 모습과 선사들의 가르침, 선원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책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선방은 해인사 퇑도사 백양사 수덕사 송광사등 조계종 5대 총림과 일반신자들의 접근이 불허되는 문경 봉암사,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이 살아있는 상원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성철 스님의 수행처였던 대승사 등의 선원이 소개된다. 또 좁은방에 몸을 가두고 정진하는 백담사 무금선원에서 서귀포 남국선원까지 주요 선원의 이야기를 실었다. 이밖에도 수덕사 견성암과 석남사 대원사등 비구니 선원을 찾았다.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지음 | 고즈윈 | 1만2800원

25인의 증언 생생히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
한암문도회 · 김광식 펴냄
민족사 | 1만2000원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오대산에 들어가 27년간 산문밖을 나오지 않았던 한암 스님(1876~1951).

스님은 계 정 혜 삼학에 철저하였고, 승가오칙(참선 간경 의식 염불 수호가람)을 제시하여 승려의 본분을 가르쳤으며 보조 지눌의 정혜결사를 계승하여 철저하게 수행했다. 또 조계종 종정을 세 번이나 역임하고, 선방에서 어록과 경전을 가르치기도 했고, 자신의 몸을 던져 상원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좌탈입망하는 등 당시 한국불교의 법을지킨 큰 어른이었다.

이번에 발간된 <그리운 스승 한암 스님>은 근현대 불교를 연구하는 김광식 부천대 교수가 지난날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스님과 재가자 25명을 만나 인터뷰한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한 도원 스님(파계사 대비암 주석)은 "한암 스님은 인과를 철저히 알고 사리에 밝았던 분"이라고 말한다. 서울 정토사 회주 설산 스님은 "근검절약에 철저했다"고 회상하고, 조계종 원로의원인 천운 스님과 대구 보광원 조실 화산 스님은 "생불이며 선지식이고 도인이었다"고 평한다.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은 "철저하고 무섭게 수행하신 스님"으로 기억하고,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김충렬씨는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던 분"이라고 회고한다.



부처님의 십대제자
성각 스님 지음
광문각 | 1만4700원

부처님 10대 제자의 극적인 인생

성각 스님(정릉 관음정사 · 작가)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집대성한 <부처님의 십대제자>를 펴냈다.

부처님 재세시 12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중에서 10대제자들은 부처님의 분신이자 그림자였다. 10대제자의 이야기는 수많은 불경에 산재되어 있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런 상황에서 성각 스님은 10대 제자들의 극적인 삶과 깨달음을 통해 크고 작은 '차이'를 조화의 근본으로, 잘나고 못난 '차별'이 없는 '절대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불교의 세계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성각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수행의 바른 좌표를 알게 하고, 대중들에게는 가뭄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무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원한 감로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각 스님은 젊은시절 숱한 시련과 좌절, 사업실패의 절망을 불은으로 딛고 SBS 창사특집 3000만원 교료의 드라마공모에 당선돼 작가로 변신, 이후 국방부 시나리오 공모 입상, 한국문예예술진흥원의 장편소설 부문 창작지원 작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스님은 특히 한국인의 끈기와 집념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도 여러편 발간하고 군 복무에 복무중인 장병들을 위한 드라마를 집필해왔다. 하지만 난치병을 앓으면서 글쓰는 것을 중단하고 불문에 귀의해 병마를 씻어낸 뒤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꿈 미래의 열쇠
현오 스님 지음
대유학당 | 2만원

어젯밤 어떤 꿈 꾸셨습니까?

"우리가 미해결사에 대해 고뇌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나 방법이 없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미래를 예지해 주는 것이다"

꿈에 대해 불교 교리에 맞게 유식철학으로 정립한 현오 스님(대지심리학연구소 소장)의 <꿈 미래의 열쇠>중 한부분이다.

스님은 "여기에서 미해결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전5식과 제6식의 일이고, 이를 예측하고 푸는 것은 아뢰야식과 이기적인 말나식에 있다"고 한다. 즉 전생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꿈의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상징으로 표현된다고. 또 하나의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려는 말나식이 꿈을 전달하면서 이기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설파한다.

이 책은 불교적 입장에서 꿈을 분석해 전생과 현생의 인과응보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신행생활과 수행을 돕는 상담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각 스님은 77년 월정사에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미얀마수도원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한 뒤 영월 보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지금 행복한가?

큰스님 44명의 "이렇게 살라"

밝고 즐거운 삶의 비결은? '그냥, 살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등 70세 이상으로 조계종단에 적을 두고 있는 44명의 큰스님들은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말한다.

불교신문 장영섭 기자가 전국 각 사찰을 찾아 선지식들을 인터뷰 한 뒤 발간한 이 책은 불교에 대한 세세한 설명보다는 부처님이 말하고자 한 핵심을 짚으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또 큰 스님들은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이렇게 살테니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설한다.

큰 스님들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의 마음을 바로보아 깨우쳐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또 이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존 법문집에선 볼 수 없는 재기 넘치고 맛깔스러운 문체도 인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대해 원택 스님(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은 "불교에 문외한이 읽어도 능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책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그냥, 살라
장영섭 지음 | 대산출판사 | 1만5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왕초보 불교 박사되다	민족사, 석지현외, 7500원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티벳사자의 서	정신세계사, 파드마삼바바, 2만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효림, 혜국 스님, 4000원
· 화두참선	우리출판사, 이계묵, 1만3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기도 prayer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당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라

몸이 아플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삶이 힘들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신에게 염원하게 된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침묵을 통해서든, 찬송가나 명상을 통해서든,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때 우리는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종교와 종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을 넘어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되짚게 한다. 그리고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틱낫한 지음 | 김은희 옮김 | 9,000원

화 100만 독자가 선택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세월이 흐를수록, 화가 날 때마다 다시 머내 읽게 되는 책!
틱낫한 지음 | 최수민 옮김 | 8,500원

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발견
2005년 한국 방문 기념으로 세계 최초 출간된 화제의 책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8,900원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법화경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한다
틱낫한 지음 | 박윤정 옮김 | 10,300원

《기도》 블로그 blog.naver.com/myungjinpub NAVER 틱낫한의 기도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6-44 Tel. 02-325-0328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1> 구룡토수(九龍吐水)

천지와 백록담은 한반도 전체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하는 상투적 표현이다.

중국에서도 천하를 가리키는 말로 강호(江湖) 내지는 사해(四海)라고 하는 걸로 봐서 물은 또다른 영토를 의미하는 말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어쩌다가 합토식(合土式)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를 비장하게 만들기도 한다.

합수식(合水式)도 마찬가지다. 백두산 물과 한라산 물을 합하는 의식은 '남북이 하나'임을 동참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의례이기도 하다. 청계천 입구에는 팔석담(八石潭)이라는 표식이 붙어있다. 조선팔도에서 가지고 온 돌들을 바닥에 깔아 현대식 조형미를 더하고서 동서남북 모두가 물이 물에 섞이듯 화합하길 기원하는 마음의 또 다른 반영이라고 하겠다.



싯달타 태자가 룸비니동산 무우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왕위를 관정위(灌頂位)라고도 불렀다.

그 관정위는 법왕에게도 해당된다. 깨달음을 얻어 법왕의 위치에 오른 부처님은 '천하를 진리라는 법으로' 다스리는 전륜성왕이라고 불렀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적 관정은 정치적 관정과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백 명의 외부에 있는 적보다도 나라고 하는 단 하나의 내부 적을 무찌르기가 더 어렵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 못지않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를 주름잡고 호령하던 정복자들도 교만에 빠져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면 그 말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를 이겨내는 마음 다스리기가 중요한 것이다.

약산유엄(745~828) 선사의 문하에서 준포납(遵布納)스님이 의식을 담당하는 노전소임을 보고 있었다. 마침 초파일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이마에 물을 붓는 관욕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자 대뜸 약산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이것'만 목욕시킬 뿐이구나. '저것'도 목욕시킬 수 있겠느냐?"

이에 준포납이 바로 대꾸했다.

"그렇다면 '저것'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초파일날 관욕의식을 치루면서 목욕의 본래의미를 서로 묻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이것'은 목욕시키는 탄생불상을 의미하며 '저것'은 모양없는 법신을 말한다. 불상은 형체가 있어서 씻을 수 있지만 법신은 형상이 없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진짜 목욕이란 관욕의식을 하면서 나의 마음까지도 함께 씻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천하 다스리는 것 못잖게 마음 다스림 어려워

관욕의식은 몸과 마음 함께 깨끗이 씻는 것

나무 밑에서 탄생하자마자 제석천왕과 사천왕들이 모두 와서 예를 올리고, 하늘에서 아홉마리의 용이 날아와 모여들어 입으로 물을 뿜어 태자의 몸을 씻었다는 일화에서 나온 말이 구룡토수(九龍吐水)다.

'구룡토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구룡이 가지고 온 물은 인도 전역의 강에서 떠온 것일 것이다. 카필라라는 소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인도전역을 통일시키는 대업을 달성해달라는 선왕이 가진 기대의 또다른 표출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왕자가 왕위에 오를 때도 관정식(灌頂式)을 했다. 즉 왕자의 신분에서 왕으로 태어나는 또 다른 탄생을 알리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물을 머리에 부어준다. 그 물은 예삿물이 아니였을 것이다.

자기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나라의 물까지도 비밀리에 가지고 와서 섞었을지도 모르겠다. 영토에 대한 욕심은 예나

"고통 드러내야 자유로워 집니다"

'에니어그램 활용 고집멸도 명상상담' 현장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고집멸도 명상상담' 연수에 참가한 출 · 재가자 12명이 명상요가 실습을 하고 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간 불편했던 경험을 털어놓으세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야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고통을 말해보십니다."

나지막이 흐르는 목소리가 연수생의 마음을 파고든다. '고통 나누기,' 고집멸도(苦集滅道) 명상상담이 진행된다. 개인마다 가지는 집착의 성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가슴에 담아 뒀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명상상담의 밀도는 높아진다.

"에니어그램은 본래 동양수행법"

4월 29일 오후 7시,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고집멸도 명상상담' 연수회가 열린 서울 약수동 목우선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3일간 정기적으로 연수회를 지도하는 인경 스님이 자기 고통 탐색과 경험나누기에 서툰 연수생 12명을 상대로 상담을 했다.

'에니어그램'과 '고집멸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서양 성격이론과 불교의 만남이 어떤 자기변화를 이끌어낼까? 연수회 입제에 앞서 이들 관계에 대한 인경 스님의 설명은 이랬다.

"에니어그램이 본래 수행프로그램이란 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철저히 동양에서 수행자들에 의해 계발된 수행법입니다. 즉 환경, 인간관계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일정한 패턴의 습관화된 행동과 성격을 자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바로 업의 인식입니다. 때문에 그 업의 이해가 곧 성격의 이해가 되는 것이고, 업을 고친다함은 개인마다 갖은 본성인 불성에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탈윤회법'입니다."

에니어그램은 스스로에게 성격을 진단케 하고, 사성제와 명상상담 등은 치유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다. 행법은 에니어그램을 방편으로 하고, 수행원리는 초기불교 사성제를 기초한 '알아차림'에 있다.

자신에게 의미있는 고통 드러내기

이튿날 오후 1시, '고통 원인 탐색시간'이 되자 집단상담이 진행된다. 각자가 드러낸 아픈 경험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표출해내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다.

군대시절 애인에게 3번씩이나 배신당했던 사연,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울 때면 의자 밑으로 숨었던 이야기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속살까지도 제한없이 오간다. 일상 속에 겪은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집단 상담이 마무리 되자,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을 찾는 시간이 진행된다. 연수생들은 각자가 지닌 고통과 그 발생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인경 스님이 정리한 '명상상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검사지는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고, 각 유형별로 3가지 세부 유형에 12개 질문항목이 담겨있다.

나는 어떤 성격유형에 속할까?

'평화지향적' 유형 9번에 가깝게 결과가 나온 나성민군(동국대 선학과 2년)은 연신 신기한 듯 검사항목을 보고 또 본다.

이후 연수회는 명상요가 실습, 호흡명상, 인경 스님의 '고집멸도' 강의로 이어진다.

앞서 시간이 개인마다 가지는 집착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고(苦)의 자각', 성격에서 발생된 집착의 내적인 동기로서 원인을 이해하는 '집(集)의 파악'의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일상 속에서 성격패턴을 인식하고 벗어나도록 돕는 '멸(滅)의 확신'과 개인 성격에 상응하는 명상법을 개발해 수행하도록 하는 '도(道)의 안내'의 순서다.

"이 연수는 잠재된 애착, 번뇌, 욕망 등의 씨앗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에니어그램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 · 행동화된 성격 패턴을 읽어냈으니, 이제는 치유법을 알아야겠지요? 그 방법이 바로 사성제와 명상, 호흡관찰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의 본질인 '알아차림'을 강하게 해요. 명상과 상담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행동의 변화도 야기하기 때문이죠. 불교에서 자기변화의 밑천을 마련하는 셈이지요."

"나에 대한 이해 깊어졌어요"

연수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의 소감을 물었다. 중앙승가대 학인 보관 스님은 "애니어그램 명상상담 연수는 나를 이해하고 맨몸으로 진리를 찾아 나선 수행 길에서 만난 훌륭한 도반이 됐다"며 "이 연수회를 통해 이야기가 있는 또 하나의 스승을 만나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스스로를 구속하는 경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좀 더 넉넉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다라양(동국대 선학과 1년)도 "억지로 파묻어둔 나의 아픔을 치료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고집멸도에 맞게 나를 찾는 과정에서 내면적인 성격을 정확히 알게 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02)2236-5306

글 · 사진=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육조단경 · 간화선 입문 강좌

조계종 중신회, 5월 16 · 17일 개강

재가불자들을 위한 간화선 공부 마당이 펼쳐진다. 선수행의 지침서인 <육조단경>을 배우고, 재가자의 눈높이 맞게 간화선 수행의 진수도 맛보게 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하안거를 맞아 각 화사 태백선원 선덕 고우 스님을 초청해 '돈황본 육조단경 대강좌'를 1년간 매달 한 차례 여는 한편, '제1기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매주 한번씩 진행한다.

강좌는 5월 16일부터 매월 셋 째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리고, 2시간 강의와 30분 문답으로 이뤄진다.

또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은 5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조계사에서 주간반(오후 2시 30분)과 직장인반(오후 7시)으로 나눠 진행되며,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신도국장 원철 스님 등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02)733-7277.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황우석 박사 지지 불교연합 결 성 공 지

귀의삼보하옵고,

□ 우리민족이 낳은 세계적인 생명 과학자 황우석 박사는 2004년 5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스님으로부터 제1회 불자대상을 수상한 독실한 불자입니다.

□ 황우석 박사는 불자로서 자비원력으로 불치병(장애 등)과 기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을 세계 최초로 발명하였으나 뜻밖의 논문조작 논란에 휘말려 현재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익히는 불자들이 불심으로 황우석 박사를 지키고저, 공개모임으로 **황우석 박사 지지 불교연합(황불연)을 2006년 4월 20일 결성**하였습니다.

□ 본 연합은 한국불교 각 종단의 고승 대덕스님들 지도하에 전국불자 여러분과 더불어 앞으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와 특허수호**를 위하여 정진하고자 하오니 제방의 스님들과 재가불자 제위의 관심과 지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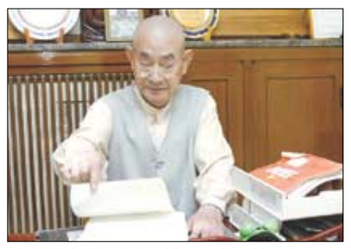
황우석 지지 불교연합(황불연)
창립회원 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 빌딩 1212호 전화 : 02) 738~1231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보봉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스님이 찬불가 작곡을 위해 키보드를 연주하고 있다.


태고종 중서부 종무원장 소임을 보고 있는 보봉 스님.

"간절히 원하면 안 되는게 없어요"


세수 여든의 나이에도 불교 범패음악과 우리민요 가락을 적절히 조화시킨 찬불가로 회향하겠다는 보봉 스님.

30년 가까이 찬불가 대중화 위한 작곡 매진
처소엔 법고 · 키보드 등 각종 악기 꽉 들어차

금방 연두색 물감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신록의 계절 5월에 기자가 찾은 곳은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위치한 범혜사 포교원 홍법원이다. 오랜시간의 흔적처럼 색이 바랜 하얀색 3층 건물의 도심포교당이다. 이곳에는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스님(80)이 주석하고 있다.

스님이 주지로 있는 또하나의 사찰인 공기좋고 산세좋은 인왕산 범혜사보다 이곳 홍법원에 주로 머무는 이유는 오직 대중포교 때문이다. 스님은 일평생 '도심 포교'를 화두삼아 정진해 왔다.

범혜사에 들어서자 친근감이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3년전 췌장 수술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이 절을 찾은 신도에게 신행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모든게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지금 사는게 힘들다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어두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니까 참고 인내하며 내 마음닦는 일에 전념해야 돼. 오직 마음공부 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

상담 내용을 옆에서 귀동냥 한 뒤 노스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노스님 방에는 목탁, 법고부터 키보드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마치 음악 작업실 같았다.

방 한쪽에 서 있는 칠판에는 음계와 가사를 수없이 지우고 다시 쓴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

"저건 다 몇 년전 찬불가 만들었을 때 했던 짓들이야. 요즘은 몇 년전 잃았던 뇌졸중 후유증으로 손발이 불편해 작곡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찬불가 대중화에 평생을 진력해온 스님의 이력을 미리 알고 간 터라 불교음악에 대한 스님의 생각이 더욱 궁금했다.

"대중이 이해 못하는 범패는 죽은 불교 음악이야. 그래서 죽기전에 범패와 우리 전통 가락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찬불가를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스님은 범패가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재(齋) 의식에서 전문 범패승만이 부르는 음악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범패는 너무 어려워 스님들도 배우기 힘들어 수료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 범패를 듣는 신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요를 만들자는 생각에 20년전부터 스님은 길을 걸을 때나 잠잘 때, 일할 때 등 시간 날 때마다 일념으로 찬불가 작곡에 매진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 끝에 스님은 20여년 동안 수십곡을 선보여 음반으로 내놓았다. 또한 61세(1988년)가 되던 해엔 그중에서 10여곡을 뽑아 세종문화회관에서 불교음악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스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했다. 스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요즘은 몸이 불편해 작곡은 못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아, 스님들의 일상이라는게 다 똑같지 뭐. 새벽에 일어나 예불하고 공양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야."

스님과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지켜보니 보봉 스님의 오후 일과는 다른 큰 스님들과 약간 달랐다.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고종 중서부 종무원장의 소임을 맡은 탓에 150여개의 관할 사찰에서 밀려오는 종무 행정의 결제건을 처리하는데 오후를 다 소진했다. 불편한 몸에도 종무 행정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요즘 보봉 스님이 가장 정성을 쏟는 것은 10월에 준공될 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이다. 원로스님으로서 종단의 큰 숙원사업을 위해 본말사 스님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보봉 스님은 오직 포교 일념으로 수행해 왔다. 1978년 미국 뉴욕에 한국 사찰로는 처음으로 전등사를 세우고 20여년간 해외포교에 주력했다. 그때 일화 한토막을 들려 주었다. 그러면서 '궁측통'이라고 하시며 살면서 간절히 원하면 안되는게 없다는 조언도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가정집 차고를 법당으로 개조해서 전등사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미주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니 교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이었던 게지요. 자동차가 법당 옆 주택가에 즐비하니 주민들이 신고하여 경찰서까지 갈 정도였으니까요. 주차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법당에 올 수 없다는 생각에 밤새 고민을 했어요. 다음날 인근 햄버거 집을 찾아가 주인을 불러놓고 매주 신도들 점심으로 당신네 가게 햄버거를 구입해 줄 테니 너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잠시후 미국인 주인이 "Yes"를 하더니 몇 개월이 지난뒤 어느 순간 독실한 불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전등사는 500여명이 들어가는 법당을 갖춘 뉴욕한복판의 큰 사찰이 됐지요."

과거를 회상하며 또렷또렷한 말투로 말하는 스님의 모습에서 평생을 몸바쳐 온 대중 포교에 대한 강한 원력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글=김주일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0년전 뉴욕 한복판에 사찰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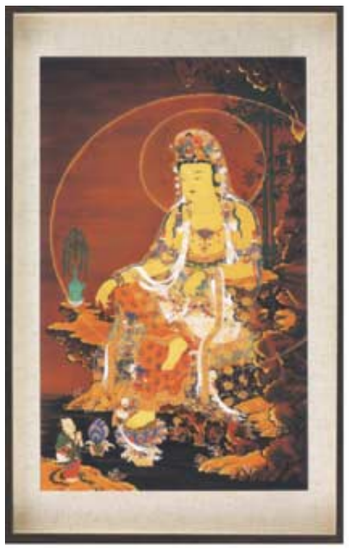
보봉 스님은 192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1945년 일본 동양대학 음악과 2년을 수료했다.

72년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을 은사로 건당해, 75년 신촌 봉원사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8년 불교전문교육원과 불교통신교육원 대학, 96년 스리랑카 피리베나대학 철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봉 스님은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 30여년간 수십곡을 직접 작곡해 음반으로 만들어 수만개를 전국에 보급하기도 했다.

또한 1978년 당시 포교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미국 뉴욕에 전등사를 세워 2000년까지 주석하며 해외포교에 진력했다.

현재는 종로 범혜사 주지직과 함께 태고종 서울중서부 종무원장,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달마도보다 더 인기!!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지혜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된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바람난 듯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배하기만 하면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38도 판화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견본품출품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집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정한수놓고, 심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딴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반매훔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사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뤄!

옴마니 반매훔,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매훔 육자대명 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믿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입각해 범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얻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매훔 복지갑은 겨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골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 반매훔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장"을 넣었으며,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병"문양을 넣어 평생 지니고 다닐때 영험이 나타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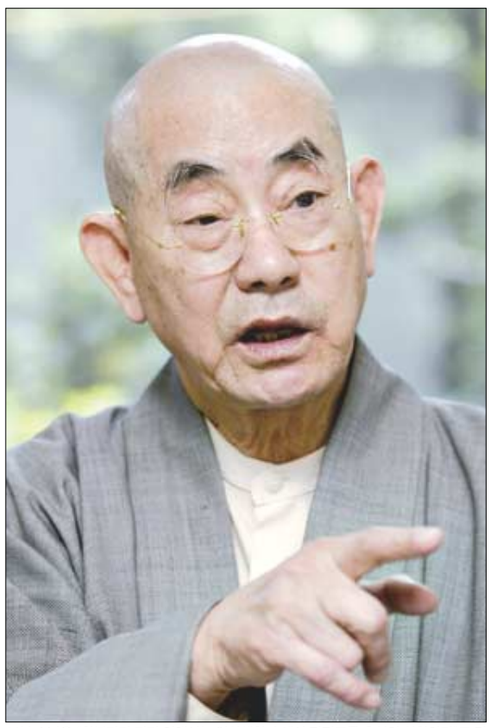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으로 신용카드로 분할구입되며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바른 생각이 바로 보게 한다



보봉 스님은 "참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팔정도를 충실히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보봉 스님의 가르침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이번 5월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의미를 어느때보다도 소중히 되새겨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본으로 돌아가, 부처님 가르침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팔정도(八正道)'를 주제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 불자들은 법회때나 불교교양대학에서 사성제와 팔정도 정도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등이라고 단어만 나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오신 참뜻을 되새기자는 뜻에서 오늘은 팔정도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마땅히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뜻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6조 혜능(慧能) 스님이 어느 날 <금강경>을 읽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홀연히 깨달았다고 하여, 선종에서 핵심적인 문구로서 매우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라고 해석되는데, 달리 표현하면 '일체의 것에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마음을 쓰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지에 오른때야말로 '평등즉차별' '차별즉평등' 이라는 중도의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도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8가지로 나누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팔정도 입니다. 팔정도는 초기교단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신 행위의 규범이자 실천 덕목 입니다. 여기서 정도란 바른길인데, 이 길은 지상의 길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가느냐 하는 삶의 길입니다. 바로 이런 바른 삶의 길을 도(道) 라고 합니다.

길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그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 제 각각의 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적용되는 공통된 삶의 바른길은 무엇일까요? 중도의 완전한 수행법인 팔정도 입니다. 이것은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수행의 길'이란 뜻이기도 하지요.

물론 여덟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중에서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를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우선 정견은 바른 견해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여실지견(如實知見)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바로 보는 것이 바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팔정도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설명할 때 특히 부부들에게 꼭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생활도 정견으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부부끼리도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한쪽면만 보지말고 다방면으로 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쁜면만 보기보다는 좋은면도 분명히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 바른 견해 가지려면
> 한쪽면만 보지말고
> 다방면으로 봐야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하는 정사유(正思惟)가 튼실하게 뒷받침돼야 합니다. 바른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함께 몸도 건강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사유를 설명하는데 왜 건강얘기가 나오냐고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 즉 바른 생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불자들에게 법회때마다 메모지나 수첩에 팔정도의 핵심 내용만 간략히 요약해 항상 지갑에 넣어두며 수시로 꺼내 읽으라고 권합니다. 직장이나 가정 등 일상생활을 할때면 마장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 팔정도의 내용을 꺼내 읽으면서 마음과 행동을 가다듬다보면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참된 불자라면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잘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體)와 용(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와 용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소홀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화엄종을 창종한 법장 스님과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측천무후(則天武后)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체와 용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요. 법장 스님은 궁의 금사자상을 가리키며 측천무후에게 "금(體)이란 본래 자성(自性)이 없으므로 기술자가 교묘하게 가공하면 이것을 연으로 하여 금사자(用)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라고 불교교리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장 스님은 금이 본체이고 금사자의 형상은 현상이므로 금이 없으면 금사자도 없으니 금은 곧 금사자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제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일체 차별상의 근본이 되는 절대평등의 본체로서 일체 만물의 불변상주하는 본 모양을 가리키며, 용이란 체를 근거로 하여 인연에 따라 일체 차별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와 용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엄에서 말하는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라는 이사무애(理事無碍)의 법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잘 음미하면서 팔정도를 생활화한다면 여러 불자님들의 삶도 5월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소담스러워 질 것입니다.

정리=김주일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4>



지상에서 사리불이 한 마지막 일

"내 어머니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 사리불이 돌아왔으니 아들이 쓰던 예전의 방을 깨끗하게 치워 주십사고 전해주겠느냐?"

늙은 사리불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리불의 집안은 계급도 높고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매우 영리한 여인이었는데 사리불을 회임하였을 때에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 저절로 해박해졌고 지혜로워 졌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큰아들 사리불이 친구 목련과 함께 고향을 떠난 지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에 대한 소문은 바람결에 간간히 실려 왔지만 고향집과는 연락을 끊고 살아서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5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가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얼핏 보면 금의환향이었지만 실은 병이 깊어진 늙은 아들이 마지막 숙제를 마치고 길고긴 삶을 내려놓을 임종의 자리를 찾아온 귀향이었습니다.

아들의 방을 손수 청소하던 어머니의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넬 기력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 둘러싸여 간신히 자신의 옛 방으로 들어간 뒤로 시뻘건 피를 토해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어머니는 그저 방문에 기대어 아들의 제자들이 들고나는 피가 담긴 그릇만을 바라보며 가슴을 태울 뿐이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임종 자리 찾아 고향에 온 사리불
브라만신 모시던 어머니에게 불법 전하고 열반

그러는 와중에도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사리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다녀간 신이 바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브라만신임을 알고 그제야 사리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다녀간 신이 내가 모시는 브라만신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저 신보다 더 높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한 명도 아닌 네 명의 브라만신들이 아기 부처님을 황금그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사상과 종교에 정통해 있었고 단단히 무장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 궁금해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들에게 절을 했고, 그 아들은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자신의 스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석가모니라는 분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불은 그런 어머니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서 부처님이 어떤 덕을 지닌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길고긴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아, 그토록 훌륭하고 실제적인 행복의 길을 왜 이제야 가르쳐 주는 것이니? 왜 진작 이렇게 설명해주려 하지 않았니?"

사리불은 더할 수 없이 커다란 행복에 휩싸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매우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섭부른 수행자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진리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었다. 내 어머니를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할 사람은 오직 아들인 나뿐이었다. 이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갚았다. 내 어머니는 성자의 단계에 들어가셨다. 내가 살아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이제 마쳤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아챈 사리불은 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정에 들어 영원한 평안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어머니는 황급하게 좇아 들어가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들 사리불의 발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몰랐구나. 이제야 너를 만났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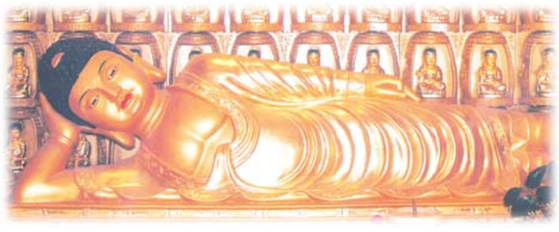
아들의 발을 부여잡은 어머니는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그 아쉬움이 풀리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늙고 병든 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올리는 마지막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에 버금가는 지혜의 상징 사리불 존자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해준 가장 큰 은인인 어머니에게 지혜의 등불을 나눠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밍군 사야도의 〈부처님들의 위대한 생애〉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격월간지 〈호두마을〉(2005년 9,10월호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법비오는곳 동해사에 기도오세요

※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 낙산사 10분 거리
휴휴암 15분 거리
불탑사 10분 거리

매년 양력 10월12일~11월20일까지 밤,낮없이 부처님 사리탑 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충만해 있는곳.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성취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주지스님이 직접 지도 및 축원발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예약전화 : 033)672-2900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5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서 예 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1:00 ~ 15:00

3. 교육기간(6개월)
●원서접수 : 2006년 5월 10일 ~ 5월 27일 ●개강일시 : 2006년 6월 2일 (금요일)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저 자 : 백설운 스님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금 액 : 35,000원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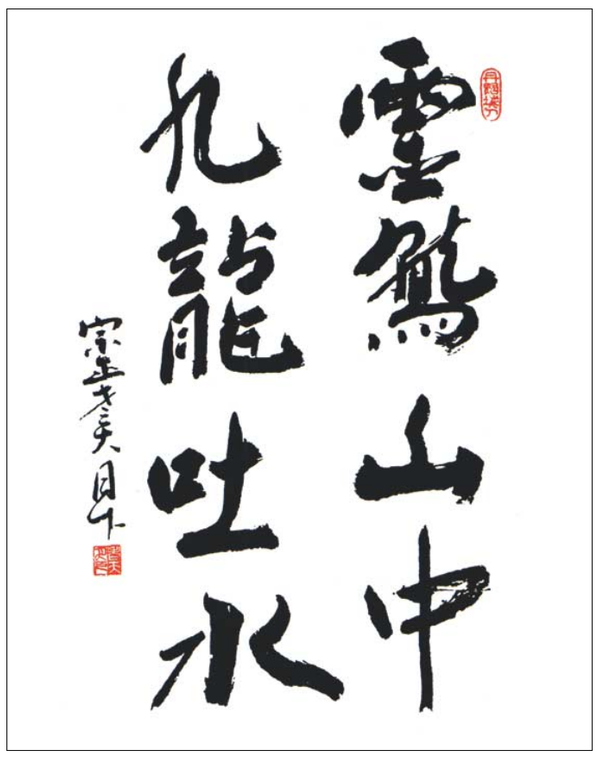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나라번영·민족평화통일·세계평화·불교중흥 기원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石山 玉龍子스님 대길상도 작품전' 원만 회향

11주년 맞아 국내외 각계인사 1만여명 동참, 국내 최대 불교미술대제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대한불교조계종 제9대 종정을 역임하신 월하대종사筆.



月下 大宗師 대길상도 증명 법어.



왕희지 서법 '佛' 옥룡자 스님 작품.



제11회 석산 옥룡자 스님 대길상도 작품전 테이프 커팅 모습.



연일 행사장을 가득 메운 불자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致辭로 축하

연일 수많은 동참인파 행렬 불교중흥의 큰 역사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나라번영, 민족평화통일, 세계평화,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불교문화제전의 큰 흐름으로 정착된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대길상도 작품전이 국내외 각계인사 1만여명의 축하와 동참으로 대성황리 회향되었다.

KBS 김동우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옥룡자스님 대길상도 작품전은 웅장한 대법고와 연합합창단의 찬불공양으로 시작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영부인 내외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화분이 불전에 공양되어 동참한 불자들은 나라번영의 축원에 두손모았다. 연일 수많은 불자와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2007년에는 더욱 성숙한 제전으로 거행할 것을 다짐하여 성대히 막을 내렸다.

금번 대제전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큰스님의 치사가 전하여져 수많은 동참 사부대중의 가슴에 환희심 충만케 하였으며 앤파르타 싸라디 주한인도대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장 윤스님,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국회정각회장 이용희 국회의원,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 열린우리당 이타회장 윤원호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대제전에 함께하였으며 이미경 국회문화관광 위원장, 청와대 불자 회장 김병준 정책실장, 이근식 국회의원, 이홍구 국회의원 등 각계인사의 축하의 뜻과 동참이 연일 계속되고, 혜남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암도스님, 무진장스님, 정락스님, 지안스님, 송석구 전 동국대학교 총장 등 불교계 석학들의 초청 강연과 연합찬불제 불교전통예술제 등이 함께 하였으며 소림다도회의 육법공양 등 예년보다 한층 성숙된 갖가지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각급 언론사가 관심있게 취재하고 보도하였다.



N파르타 싸라디 주한인도대사에 작품증정.



열린우리당 이타회장 윤원호 의원 축사.

불교전법 역사의 새 지평 · 불교중흥 나라번영에 일조
전세계인에게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

致 辭

높고 높아 당당하여 만법 가운데 王입니다.

삼십이상이요 백천가지의 빛입니다. 성현범부가 우러르고 외도가 귀의하여 돌아옵니다. 자비로운 모습 뵙기 어렵다 말하지 아니합니다.

여래께서 룸비니 대도량에 아직 그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룸비니 대도량이 어디입니까. 눈닿는 곳마다 여래의 옛도량 아님이 없습니다.

주인 가운데 주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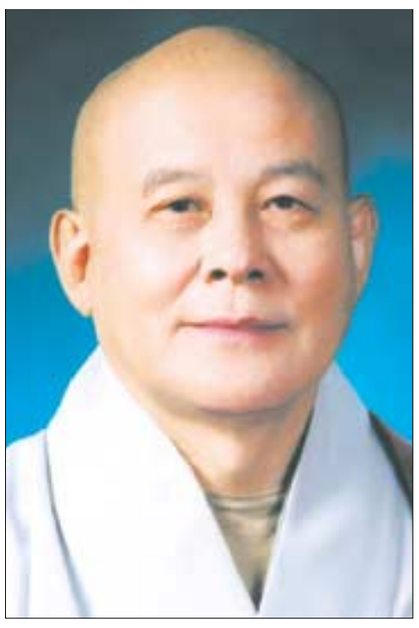
긴세월동안 문밖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적연하여 본래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되 대자대비의 큰배로 사바고해의 중생을 제도하였습니다.

水不離波 波是水

물은 물결을 떠나지 않으니 물결이 바로 물입니다. 중생이 한 생각 몰록 돌이키면 여래의 대원경지 입니다.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나 어느일도 걸림이 없습니다. 해탈을 구하지 않고 천당도 즐기지 않습니다. 다만 능히 한 생각 무념으로 돌아가면 높이 毘盧頂上을 걸어갑니다.

風和花織地 雲淨月滿天

봄바람이 불면 꽃이 땅을 수놓고, 구름이 걷히니 달빛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부처님 오시는길에 솟아나는 룸비니의 연꽃향기로 삼천대천 세계가 다 성불의 꽃이 되어 솟아 오릅니다.

대자비 佛性의 光明한 기운을 大吉祥이라 하며 중생성불 연화정토 성취의 원력으로 정성다하여 조성한 작품을 대길상도라 할것입니다. 길상은 법구비유경 제4권에 상세히 설하여져 있습니다.

신라 자장대국통께서 창건하신 불보종찰 통도사와 제방의 수행처에서 정진한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20여년간 전통서법, 전통동양화필법, 선묵등을 연마하고 선필 대길상도의 一家를 이루어 불보살님 진리광명의 세계를 길상도로 표현하고 조성하여 나라번영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제11회 불교문화제전을 봉행하니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대제전을 통하여 국내외 여러 소중한 곳에 玉龍子 석지형 스님 대길상도가 전하여져 한국불교 문화의 그 높은 정신세계가 더욱더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불교전법역사의 새지평을 여는 훌륭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불보살님께 기원드리며 조성된 대길상도는 불자님의 신심증장과 정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같은 품격높은 불교문화제전은 불교중흥과 밝고 행복한 사회구현을 통한 나라번영에도 일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장엄한 대제전을 마련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과 동참하신 각계인사 여러분에게 부처님 공덕이 함께하시고, 이 나라에 번영과 발전이 민족에게 화합가 평화가 전세계인에게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0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불자의 바른신행에 큰 기여

축 사



平常心이 道입니다.

세상에서 공존하는 사람들의 평등감각이 꽃피어나고 물흐르듯 거리낌없는 자연현상과 같이 되었을 때 삶가운데 원만한 조화가 이루어져 피아간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든 모습이 바로 道입니다. 꾸밈없는 천지대자연의 실상이야말로 비로자나 부처님 본래의 자리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맑고 밝아 이 세상을 평화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세간에 나투어진 진리의 모습을 길상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상서롭고 건강하고 넉넉하고 복과 지혜와 덕이 구족된 대원경지 입니다. 이 세상은 길상의 꽃향기로 넘쳐나 모든이들이 成佛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법신 나투신 성스런 시절에 길상의 꽃을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주는 이가 있습니다. 玉龍子 석지형 스님입니다. 이땅의 성지중의 으뜸 성지 영축산 통도사에 입산득도하여 제방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용맹정진하고 山中에 전하여오는 선필의 큰맥을 이어 고강한 필체의 一家를 완성한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대길상도는 참으로 수행자의 중생을 위한 고된 용맹정진의 힘과 불보살님의 감응하신 공덕의 꽃이라 여겨집니다.

玉龍子 석지형 스님은 불교가 중흥되려면 청년불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오래전부터 군포교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인연있는 군부대 법당 중창에 적극 동참하여 기증함으로서 군불교 발전을 통한 불교중흥에도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실을 교계는 널리 알고 있습니다.

티벳불교에서 불보살님의 세계를 표현한 만다라 탱화의 또다른 이름이 길상도입니다. 그 안에는 우주만물의 길하고 복된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 각계의 여러인사에게 널리 전하여져 소중하게 소장되고 국제적인 인증까지 함께 받고 있는 대길상도는 불자님의 바른 신행과 불교중흥에도 더욱 큰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그동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금번 제11회 제전을 이와같이 성대하게 거행하게 된데 대하여 거듭 축하의 마음으ㅁ전하며 함께 땀흘리고 영광의 제전을 준비하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제전이 더욱 불교와 이 땅을 위한 훌륭한 제전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의 모든이들에게 부처님의 공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0년 4월 20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불교중흥과 나라번영·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제전으로 승화

玉龍子 대길상도 예술성 세계가 극찬
인류평화와 불교중흥 역사의 큰 산맥



MBC TV 玉龍子 스님 대길상도 보도 장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20여년간 길상도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봄에 봉행한 제1회 제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9대 종정 月下대종사께서 친히 임석 증명법어를 전하시고 대통령께서 축전으로 축하 동참하였으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 이수성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와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만히 성취 봉행되었다.

이후 매년 대길상도전을 봉행하며 10회에 이르는 동안 전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큰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큰스님께서 법어를 대제전에 전하여 축하하였으며, 금번 11회 제전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께서 법음을 치사로 전하시어 심축하시고 사부대중의 가슴에 크나큰 환희심이 충만케 하였다.

대제전은 그동안 제1회 제전 당시 이수성 국무총리, 김태응 불교TV대표이사,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 조해형 불교방송사장 등이 동참한 이래, 2002월드컵 정몽준 조직위원장,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홍기삼 동국대학교 총장,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등 각계인사가 축하 동참하였으며, 시인 고은 선생, 류시화 선생, 서울대 미대 엄태정 교수, 미술평론가 윤범모 박사, 철학자 김형효 박사, 동국대 서윤길 박사, 정병조 교수 등이 대길상도전의 기념강연에 동참하였다.

길상은 법구비유경 제4권에 설하여져 있다. 길상도는 수천년 전부터 특히 중국에서 발달해왔다고 볼 수 있다. 玉龍子스님 작품세계는 길상도와 함께 왕희지체 서법, 안진경체, 구양순체, 한대의 예서체, 역대 중국황제 필법 금석문체, 청대의 등석여체, 八大山人서법과 화법, 제백석 필법 등 법서 작품을 연마하여 도와 예술의 심오한 경지를 작품을 통하여 성취하여 나라의 번영과 불교의 중흥, 세계의 평화를 축원하여 온 것이다.

玉龍子스님의 군마도 작품은 특히 유명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답례를 제의하며 작품을 소장코자 원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대제전 동참 불자 등을 위하여 작품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예도 다수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청와대 불자회장 김병준 정책실장, 국회정각회장 이용희 의원,
이미경 국회문화관광위원장, 안홍준 국회정각회 간사,
열린우리당 이타회장 윤원호 의원, N파르타 싸라디 주한인도대사,
이근식 의원, 이종구 의원 등 각계인사 축하의 뜻 동참

玉龍子스님 대길상도 작품의장은 국내는 물론 심사의 규정과 과정이 엄정하기로 정평 있는 미국 연방정부와 일본정부 특허청의 특허인증을 다수 획득하여 작품세계의 국제적 보



玉龍子 석지형 스님은 수시로 군법당 법회에 참석한다. 육군훈련소 3000여명 수계법회

크 전 인도대사, 산토시구마 전 인도대사, 파르다 싸라디 레이 전 인도대사, 그리고 앤 파르다 싸라디 현 인도대사 등이 계속하여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대길상도전에 동참하여 온 것이다. 현재 주한 인도 대사관 대사실에는 순금분으로 조성된 대형 용마도가 장엄하게 소장되어 있다.

제1회 대제전부터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청와대 불자회, 국회정각회,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불교TV, BBS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 대한불교, 주간불교, 만불신문 등과 함께 관계기관의 후원과 협조로 봉행되어 왔다. 금년 들어 제11회 제전을 원만히 회향한 玉龍子 대길상도 작품전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제전으로 확고히 정착되었으며 나라번영과 통일,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전 불교적, 세계적 제전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다.

편성과 예술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관세음보살 길상도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순금과 순은으로 조성하여 불국정토 성취와 세계평화기원으로 전 세계에 전하는 역사적인 불사를 하고 있다. 대길상도 작품은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 인도대사관 등 국내외 여러 곳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불교의 중흥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젊은 세대를 위한 포교에 크나큰 관심이 있다. 바쁜 나날 가운데 군부대 수계법회와 위문에도 남다른 정성을 기울인다.

1990년에는 육군 39사단 군법당 안국사 중창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육군에 기증하여 군 불교 발전에 큰 획을 긋기도 하였으며, 국군 최정예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맹호부대 법당 삼존불 점안법회를 증명법문하고 한국불교 최대 수계전법 도량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도 수차에 걸쳐 봉행하여 왔으며 군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다. 또한 불보살상 대길상도 호신불을 시민과 불자, 군경, 학생 등에게 무수히 보시하여 왔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전과 제1회 대제전 이후 주한 인도대사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샤산


중생의 병고소멸을 기원한 길상도인 '악왕구룡 3천년 천도'.



불교문화 대제전 玉龍子 대길상도전 SBS뉴스 보도 장면.

불교와 민족의 역사에 영광스런 회향할 것
종단 대덕 큰 스님들의 동참 · 격려에 감사

봉 행 사



書之氣 必達乎道. 서의 기는 반드시 도에 이르러야 한다. 서성(書聖)으로 일컬어지는 왕희지의 書訣로서 붓을 들고 글을 씀에 반드시 道의 흐름속에서 해야하는것 임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당의 목종황제와의 문답에서 당대 명필 유공권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用筆佐心 心正筆正 乃可爲法. 용필은 마음에 달렸으니 마음이 바르면 붓이 바르게 된다고 함은 법이라 할 수있다는 말입니다.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길을 답사하여 마음속의 속되고 탁한것을 벗어버리고서야 작품에 임할 수 있다는 옛사람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會心 山水眞如畵巧手丹靑似眞. 山水를 정관하니 정말 그림같고 영묘한 기교로 그린 그림은 진짜 山水같다. 사혁(謝赫)은 전이모사(傳移模寫)를 고개지는 전신사조(傳神寫照)를 말하였습니다. 깨우침의 길로 들어서는 선삼매적 용필속에서 길상도가 태어납니다. 로댕은 예술의 본질은 표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보살님의 우주적 진리세계를 이세상 중생계의 모습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표현해 내는 것이 길상도의 과제입니다. 수행과 전법으로 바쁜 나날의 삶가운데 호흡을 가다듬고 붓을 잡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至禪의 순간임을 느낍니다. 왕희지의 후손인 대서법가 지영(智永)선사는 영흔사 누각에서 30여년간 내려오지 않고 붓수천개가 다 닳도록 두꺼운 벼루가 다 닳아 절구같이 되도록 연마하고서야 一家를 이루었으니 도와 예술의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一生을 다바쳐 끊임없이 정진하고서야 가능한 일임을 알겠습니다. 서성 왕희지의 진적 난정서를 품에 안고 환희하던 당태종 이세민은 심지어 말 잔등에 벼루를 싣고 다니며 말타고 행군하면서도 글을 썼다하니 옛사람의 자기완성을 향한 치열한 구도적 수련은 참으로 본받을만 하다 하겠습니다. 천하제일 선문조종 중국 숭산 소림사의 산문현판글씨 少林寺 세자를 훌륭한 필력으로 쓴 청(淸)의 강희황제는 5000년 中國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길상도에는 불보살님께 올리는 중생성불의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점 한점의 작품마다 일생을 다 모두어 바치는 정성을 쏟아붓고 불보살님께 기도축원을 올립니다.

1996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月下 대종사님을 모시고 제1회 제전을 마련한 이후 금면 제11회 제전에 이르도록 대길상도와 대제전에 인연맺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영축산 산중과 종단의 여러 대덕 큰스님의 배려와 격려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금년 제전에 축하의 뜻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큰스님께서 소중한 치사를 법음으로 전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에 환희심이 넘쳐날것입니다.

이끌어주시는 여러 훌륭한 선배 대덕큰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도반 후학스님 여러불자님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불은에 보답하고 모든 공덕을 사부대중 여러분과 영광스런 불교와 민족의 역사에 회향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부처님 오시는 길에 길상화 꽃을 한없이 뿌려 공양올리며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0년 4월 20일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봉행위원장
玉龍子 석지형

대길상 선화작품
세계적 높이 평가

축사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이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불교문화대제전은 기념 대강연회와 선서화 길상도 작품전 불교문화예술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 된 문화예술축제로서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다함께 되새겨 보면서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선사화 길상도 작품전'은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오랜 기간 새로이 불교예술의 영역을 개척하여 한국불교 미술의 진면목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전시회로서, '법구비유경'의 내용에서 비롯된 대길상 선화작품의 예술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평가 받아왔습니다.

불보살님의 무량한 대자대비의 원력을 표현하는 길상도 작품을 통해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심오한 예술세계와 철저한 구도정신을 접해보면서 길상도의 맑고 밝은 기운이 모두의 마음에 참 빛으로 다가오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오묘한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세상에 오신 날을 봉축하고 나라의 번영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불교문화대제전이 해를 더할수록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50년 4월 20일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

높은 수행 정진과
훌륭한 자비 이타행

축사



존경하는 대덕스님!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 귀빈과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오신 날을 찬탄하는 법석에 불자님들을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륵의 세계를 이 곳 중생계에 펼쳐놓으신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노고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봉축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인연 불자와 봉축을 함께 맞이하고 문화대전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 스님의 수행정진과 자비이타행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비롯함이 없는 영겁부터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성품을 등지고 갈등과 대립속에서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법석은 과거의 그릇됨을 과감히 버리고 자비와 나눔을 베풀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봉축하며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대길상선화 작품 대법회가 성공적으로 회향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불자들과 나라와 가정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0년 4월 20일
국회정각회 회장 **이용희**

국민적인 문화축제
단결·화합하는 계기

축사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꽃향기 진하게 물결치는 오늘인 류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의 선각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신으로 나투신 거룩한 이 땅에서 전국의 불자들이 모여 봉축기념 대길상도 작품전을 봉행한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 성스러운 법석에서 대길상도 작품을 통해 평화통일이 성취되고 불자와 국민 모두에게 행운과 번영, 성취와 승리의 기운이 충만하시길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玉龍子 스님께서 세계평화와 민족번영의 염원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밤새워 정진하며 기도로 조성하였다는데 매우 뜻깊고 감동의 환희가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아집과 배타심을 버리고 행복하고 참된 삶을 누리도록 설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사람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나와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가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길상도의 고귀한 정신을 받들어 온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입니다. 봉축기념 불교문화대제전을 사부대중과 함께 축하하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불기 2550년 4월 20일
열린 우리당 의장 **정동영**

인 사 말 씀

1996년 거행된 제1회 제전 이후 금년 제11회 제전에 이르도록 협조와 후원을 함께하여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청와대 불자회, 국회정각회, 주한미국대사관, 주한인도대사관, KBS, MBC, SBS, 불교TV, BBS불교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대한불교, 주간불교, 만불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각급 언론 등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11년 동안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행사의 원만한 성취에 기여하신 롯데그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참하여주신 시민과 불자 전 세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더욱 초발심으로 용맹정진하여 불교중흥과 나라번영, 세계평화의 길에 정성을 다할 것임을 서원합니다.

제11회 불교문화대제전 봉행위원회 합장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화해·평화의 선율 금강산의 봄 피우다

윤이상음악회 '용의 귀환' 금강산 문화회관서 열려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과 북의 연주자들이 만나 '윤이상'을 연주했다. 사진은 국립국악원의 연주 모습.

'상처 입은 용'이라 불리었던 불자 윤이상 선생이 평소 염원했던 휴전선 민족합동음악축전 기획을 계승한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4월 29일 금강산 문화회관에서는 남과 북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이상'을 연주하고 '윤이상'을 노래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해왔던 윤이상 선생의 소원이 작게나마 이루어진 자리였다. 그래서 음악회의 소제목은 '용의 귀환'. 상처 입은 용이 두 쪽으로 갈라진 조국이나마 다시 돌아와 심금을 울리는 음악으로 귀환한 것이다.



이수자 여사는 선계사 기와불사에 동참했다.

음악회 1부는 음악평론가 장일범씨의 사회로 남측 연주자들의 음악이 관객을 사로잡았다.

TIMF앙상블이 연주한 파헬벨의 '캐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선보인 윤이상 가곡 '편지' '추천' '남도아리랑' 등이 울려 퍼졌다.

2부는 북측 소개자 최성화씨의 진행으로 평양윤이상관현악단이 윤이상 가곡 '고풍의상' '달무리' '협주적 단편' 등을 선보였다. 전체 60여명 단원 가운데 20여명이 이번 음악회에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공식 자리에 처음으로 나와 그동안 갈고 닦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던 실력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남성민요복창 '금강산 타령' '토장의 노래' 등은 흥겨운 가락에 관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북측 남성가수의 신나는 노랫가락에 '앙코르' 요청까지 쇄도해 군밤타령까지 덤으로 들려주며 무대를 내려갔다.

2부의 하이라이트는 윤이상 선생의 난해한 현대음악을 맛볼 수 있는 소관현악 '협주적 단편'이 맡았다.

소관현악 '협주적 단편'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선율이 감미롭다기보다 섬뜩한 전율을 선사했다. 고뇌하는 인간의 내면적 혼란과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강한 음색, 자지러지는 현악과 관악의 조화로운 선율은 뇌리에 깊게 박히는 무언가를 남겼다.

곡의 중반부에 들어서면 목탁소리처럼 리듬감 있게 두들겨지는 타악기 소리를 신호삼아 현의 튕김으로 분위기가 반전된다. 그리고 다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음들은 이상 시인의 시를 떠올리게 하는 난해함을 품는다.

'다시 만납시다'를 노래하며 끝을 맺은 윤이상음악회는 관객들 모두에게 훈훈한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장용철 윤이상평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금강산 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개성, 평양 등에서도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혀 남북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이상'을 한 마음으로 연주할 그 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남겼다.

이에 앞서 4월 28일 금강산호텔서 남측 기자단과 최초의 기자간담회를 가진 미망인 이수자 여사는 "정부는 윤이상 선생을 간첩두목으로 몰았던 동백림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며 "윤 선생의 명예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통영에 달려와 선생이 꿈에도 잊지 않았던 통영 바다에 가서 한이라도 풀어드리고 싶다"고 가슴에 응어리졌던 피맺힌 한을 토해냈다.

또한 "인생의 슬픔과 불행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이해하게 됐기에 독일에서 유일한 불자로 살았다"고 고백했다.

이수자 여사가 바라는 바는 오직 하나 윤이상 선생의 명예회복뿐이다. 그 간절함을 담아 신계사 기와불사에도 동참했다. 공식행사에 이수자 여사와 함께 참가한 딸 윤정씨도 어머니의 건강을 빌며 신계사에 기와를 얹었다.

금강산/글 · 사진=강지연 기자



북측 연주자들 남측 주최 공식 자리에 첫 선

현대음악으로 시작 '다시 만납시다'로 회향

이수자 여사 기와불사 동참, 명예 회복 기원

"사상 등 소프트웨어까지 복원"

황룡사복원 국제학술대회



"황룡사의 복원에는 당시 건축물과 장식, 내부 장엄(莊嚴), 사찰 조경(造景)과 방리(方里) 구조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불교 의례와 민속 등 소프트웨어 복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4월 28~29일 이틀간 경주 보문단지 내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황룡사복원 국제학술대회'에서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복원사업단장은 '황룡사 복원 계획의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황룡사는 당시 국가 이념인 불국토 사상과 왕권을 표현하는 호국의 상징물이기에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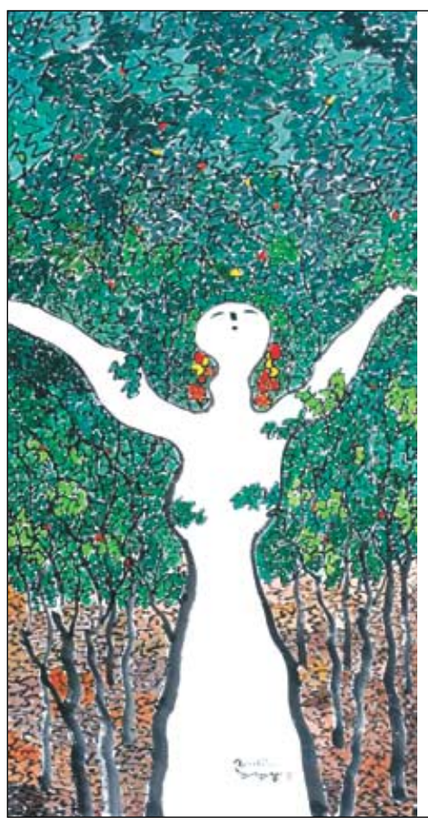
배 단장은 "복원하는데 2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황룡사 전각과 주변의 전시장과 방리(方里) 복원까지 한다면 3,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비용은 국가가 주도하여 정부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도 '고대건축 복원의 의미와 방법 : 황룡사 복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황룡사가 왜 복원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복원 원칙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황룡사 복원이 하나의 방안이며 디지털 복원을 통해 역사속의 황룡사와 경주를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이 경주에 하룻밤 묵고 가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 토론에 나선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복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하나 아직까지 9층 목탑과 장육존상 등 신앙의 대상물들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짓는 것은 반대한다"며 "특히 관광자원화 되기보다는 황룡사 건립 당시의 불교적 정신을 이어받아 신앙의 공간으로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적 복원의 의의, 국내외 유적 복원에 따른 활용 사례, 황룡사 복원의 타당성 검토, 그에 따른 제반문제 검토 등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진행됐으며 국내외 전문가 30여명이 동참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경주=김두식 기자



봉축 시화(詩畵)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허허당(휴유암 암주)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건 마찬가지, 마음이라 했나..!
보고보고 또 보아도
한없이 보고 싶은 마음, 사랑이라 했나..!
주고주고 또 주어도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 자비라 했나..!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보고 또 보고 주고 또 주어도
한없이 일렁이는 마음.
부처님 마음
아,
이 마음 하나로.
세상 무엇 하나 두려울게 없네.
세상 무엇 하나 힘들게 없네.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2550 부처님오신날



“작은 정성 큰포교…동참하세요”



경기도 고양 호국 백마사 군장병들이 법보시된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이익수 군법사

일주일에 한번 세상과 만나는 窓
“늘 새롭고 친숙하고 읽기 쉬워요”
“법보시야말로 불사 중의 불사죠”

일주일에 한 번, ‘현대불교’를 받는 것이 기쁘고 반갑다 못해 혼자 보는 것이 아까워 보시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10여 년간 장기구독을 했을 뿐 아니라 교도소, 군 · 경찰 · 병원법당, 복지관 등지에도 신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매달 법보시 후원금을 내고 있는 후원자가 그들이다.

올해 63살의 민성곤씨(서울시 서초구)는 어린 시절 허리를 다친 이후로 40년 간 꼬박 자리에 누워 지내온 지체장애인이다. 그런 민씨가 ‘현대불교’를 처음 만난 것은 10여 년 전. 집에 있던 <팔만대장경>을 독파하고도 진리에 대한 타는 듯한 궁금증을 풀지 못했던 민씨는 우연히 대행 스님을 알게 된 후 대행 스님의 법어를 읽기 위해 ‘현대불교’를 구독신청 했다. 신문을 통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교계의 소식도 들을 수 있게 됐기에 목마름이 컸던 만큼 해갈의 기쁨도 컸다.

홀로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있어야 하는 민씨는 ‘현대불교’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창이라고 말했다. 매달 1만원씩 후원금을 보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 받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법보시를 시작했습니다.”

잠 잘 때도 ‘현대불교’를 옆에 끼고 잘 정도로 애독자인 심숙희씨(52 · 경북 상주시)는 교도소나 군부대 등 사회와 격리돼 있는 곳의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하고자 법보시에 동참했다.

“불자들 중에는 ‘우리 절 불사도 아직 못했는데 무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군포교야말로 불사 중의 불사 아닌가요”라고 묻는 심씨는 “불교 포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여력이 닿는 만큼 법보시 후원을 하면,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반드시 포교에 보탬이 되리라고 믿어요”라고 강하게 말했다.

창간호 때부터의 구독자이자 2002년부터 법보시에 동참하고 있는 장현만씨(48 · 전북 전주시)와 김용호씨(39 · 경기도 남양주시)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후원자라고 말하기도 쑥스럽습니다”라며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군법당, 병원법당 등에서 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 법보시를 시작했다”고 후원이유를 털어놓았다. 십여 년 전, 아장아장 걷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서울 조계사에 들렀다가 ‘현대불교’를 알게 된 장씨는 ‘현대불교’의 장점이 “늘 새롭지만 편하고, 친숙하며 읽기 쉬운 점”이라고 꼽으며 “때문에 초심자나 입문자에게도 권하기 좋다”고 전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의 신도라고 밝힌 김씨는 “법보시를 받는 분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마음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작은 힘이나마 모으면 커질 것으로 믿는다고 입 모아 말한 네명의 독자들은, 좀 더 많은 독자들이 ‘현대불교’ 법보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309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형자. 군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0여만 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을 통해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1구좌 이상 전화로 신청

■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 1팀
(02)2004-8211~2(직통), (02)2004-8200(대표), 팩스(02)737-0697

● 매주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2006년 5월 현재

구분	발송처	보시	부수
군부대	군법당	349	410
	국군병원	7	9
교화기관	교도소	47	226
	교정청	2	6
	소년원	12	36
	구치소, 감호소	12	57
	감별소	3	9
복지단체	아동복지	24	24
	노인복지	23	23
	의료기관	14	72
	복지단체/협의회	56	57
	장애인복지	11	11
	청소년복지	12	12
	지역복지	19	19
	기업복지재단	8	8
	복지관련대학	35	35
경찰	경승실	186	190
	경찰병원	2	6
기타	개인	57	57
	단체	34	42
총계		913	1,309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강대덕행 강덕순 강도분 강릉지원 강명옥 강명자 강미경 강미숙 강수옥 강순희 강신택 강영내 강영신 강인자 강점숙 강춘계 강혜숙 강황진 강후원 경연혜 계미영 고경옥 고은영 고재숙 고재흥 고준영 고필선 고헌사 공덕화 공정심 공평근 곽동희 곽명순 곽문용 곽성순 곽우진 곽은아 곽중경 곽춘자 광명선원 광주지원 구길자 구명보 구수연 구주현 구필회 국인호권경숙 권구현 권두상 권명아 권미경 권순남 권오응 김갑순 김강산 김강웅 김건용 김경수 김경옥 김경옥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규순 김규정 김금옥 김금천 김기성 김기자 김기준 김기홍 김나령 김남규 김남오 김다래 김달순 김덕임 김동원 김동자 김동찬 김둘남 김명란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윤 김문자 김미래 김미연 김미진 김민정 김병일 김병희 김복남 김복영 김봉란 김봉애 김비연 김상필 김상호 김석동 김석자 김선아 김선엽 김선영 김선화 김성수 김성순 김성자 김수옥 김수정 김숙자 김순금 김순련 김순복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재 김승호 김승훈 김안숙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여순 김연수 김연옥 김연희 김염순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식 김영애 김영예 김영옥 김영자 김영출 김영팔 김옥남 김옥선 김옥순 김옥정 김용만 김용순 김용재 김용호 김우전 김원용 김윤관 김윤자 김은식 김의식 김인태 김재방 김정권 김정규 김정덕 김정렬 김정숙 김정숙 김정아 김정애 김정옥 김정원 김정희 김종영 김주현 김준형 김중철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김진근 김진선 김진영 김채란 김철수 김춘희 김태수 김택곤 김학근 김학수 김한구 김향숙 김현국 김현숙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현화 김형운 김형태 김혜옥 김홍조 김화남 김화일 김효래 김효례 김효상 김희순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나숙희 나순옥 남광스님 남국석 남선자 남수경 남여원 남유선 남종진 남주희 남현우 노성일 노성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윤택 논술문화 단영숙 대구지원 덕장스님 도미라 도태순 류동연 류송우 류정오 류지형 류해창 마정혜 마진호 맹남균 목포지원 문경숙 문경지원 문두상 문상철 문숙희 문순조 문영희 문재근 문정희 민경애 민성곤 민정원 민진옥 박경국 박경옥 박경자 박경희 박공임 박금봉 박기숙 박기정 박남순 박덕엽 박말이야 박맹순 박명란 박명희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균 박봉기 박봉순 박봉영 박상기 박상 돈 박상섭 박상섭 박선애 박성수 박수경 박수영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신영 박양주 박연숙 박연신 박영숙 박영준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용무 박용배 박용욱 박용진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선 박인화 박장미 박형채 박재석 박재윤 박정노 박정상 박정숙 박정숙 박정숙 박정순 박정옥 박정자 이보편 박정희 박종임 박종희 박주찬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경환 박정자 박찬 박천혜 박철홍 박청길 박춘미 박춘봉 박태균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순 박현주 박형숙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혜선 박화재 박희순 방명극 방명섭 방미애 방순자 방장수 배민화 배임선 배정임 배춘자 배태열 배현옥 백규현 백연숙 백영묵 백인창 백종희 백혜원 변영희 변용태 본원 봉철응 봉현주 부산지원 부천지역법보시 불교문화회관 상현스님 서경자 서덕교 서미옥 서병학 서영주 서영혜 서예숙 서울월곡청소년 서원석 서윤이 서의숙 서재영 서정우 서청자 서춘건 서희숙 석영수 선덕스님 선현자 성경순 성민자 성재영 손문철 손순옥 손영실 손은주 송길순 송동호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인옥 송재운 송 정구 송종화 송필재 송희경 신근덕 신남선 신덕근 신덕근 신동호 신상균 신성완 신수영 신수호 신영찬 신용례 신용천 신윤기 신재철 신정규 신조현 신주호 신진임 신진희 신창순 신현순 신혜경 신효철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숙희 심영애 심영애 심원식 심현보 안광기 안국선원 안병윤 안은경 안은희 양세욱 양순조 양연숙 양연희 양영모 박경수 양익수 양재호 양재호 양준원 양태환 양현주 양흥용 엄재성 엄재욱 엄흥수 엄흥수 여상배 염흥수 오경환 오광자 오미덕 오병덕 오상숙 오승훈 오승희 오신재 오원중 오재영 오정남 오정애 오정자 오지은 오창순 오학규 오현규 오현자 오현희 옥영식 우동렬 우병선 우지예 우진궁 우춘자 울산지원 원각스님 원판영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보향 유영미 유영신 유종옥 유준호 유지연 유지호 유진옥 유태선 유효봉 육성희 윤경환 윤기석 윤기원 윤기홍 윤대수 윤병덕 윤병창 윤분숙 윤상현 윤석완 윤선영 윤여형 윤영숙 윤오인 윤우식 윤정연 윤정일 윤제학 윤종숙 윤지웅 윤지은 윤채남 윤춘매 윤춘희 윤현숙 윤현순 윤희원 은석초등학교 이강만 이강희 이건우 이건중 이경남 이경숙 이경애 이경영 이경원 이경자 이경주 이경희 이광수 이광훈 이구자 이군자 이귀순 이규달 이규만 이근기 이근혜 이기선 이기수 이기오 이길순 이단식 이대섭 이대성 이대주 이동주 이동진 이두영 이명규 이명숙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미경 이미나 이미라 이미정 이미화 이병태 이복동 이복성 이복희 이상옥 이상은 이상태 이석순 이선례 이성용 이수양 이숙경 이순덕 이순복 이순자 이순화 이순희 이승남 이승윤 이승훈 이신정 이양희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영경 이영득 이영숙 이영순 이영신 이영자 이영진 이영환 이영희 이옥순 이옥순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용원 이용재 이용진 이우순 이우진 이우환 이운화 이원상 이원애 이원희 이유순 이윤희 이은구 이은숙 이은주 이은희 이익수 이재숙 이정남 이정숙 이정순 이정안 이정임 이정조 이정헌 이정희 이종섭 이종성 이종숙 이종옥 이주복 이준구 이준섭 이준재 이중기 이지영 이지현 이진선 이진순 이찬수 이창호 이철헌 이청춘근 이춘자 이충선 이태인 이태희 이필희 이한희 이항우 이해송 이행자 이향림 이향순 이현숙 이형신 이형오 이형호 이혜숙 이화자 이효직 이훈노 이 희숙 이희영 일진성 임경희 임광기 임동하 임명옥 임병기 임선희 임성중 임영애 임옥빈 임용호 임점순 임정숙 임종구 임춘옥 임춘희 임형준 임용식 장기환 장명호 장문규 장미숙 장미순 장성윤 장영남 장재국 장재원 장정 장정자 장정희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경희 전계영 전명국 전병수 전수남 전유신 전은희 정각원 법당 정경남 정구순 정규열 정근희 정금란 정금자 정대자 정명자 정미련 정민오 정상만 정설매 정성남 정수자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신 정영희 정옥녀 정운경 정윤채 정은영 정응균 정인순 정인자 정차효 정창남 정창래 정필순 정하석 정학진 정한영 정회철 제주지원 조경숙 조계희 조공옥 이산궁 조권식 조귀자 조근영 조명래 조명숙 조미란 조민규 조복순 조봉호 조양순 조영석 조옥순 조원희 조재규 조정해 조정희 조진한 조창희 조현수 조현우 조현정 조현주 조혜숙 주경숙 주미숙 주정숙 주정옥 주정희 주희숙 중부경남지원 지경애 지명구 지혜선 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영숙 차민영 차민영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보살 천영기 청무스님 청주지원 최경락 최경진 최병조 최복림 최복섬 최복순 최상철 최선숙 최순옥 최영숙 최옥자 최원주 최윤희 최은희 최인자 최정기 최정미 최정희 최종열 최준성 최준영 최태영 최태준 최학우 최행규 박기순 최희숙 탁순례 태순덕 통영지원 포항지원 하근수 하미경 하미희 하재한 하정숙 하정희 하태선 한경자 한기영 한기준 한마음선원본원 한숙희 한영순 한윤진 한은섭 한은영 한인식 한동원 한세진 한재희 한철화 한화성 한화윤 허경순 허미옥 허복영 허성국 허승재 허재승 허태영 허태환 현남순 현미숙 현석선 호소희 홍경욱 홍경화 홍순 홍순아 홍애순 홍월자 홍학란 황경숙 황경욱 황금영 황논철 황순수 황순심 황옥자 황용숙 황인순 황인형 황정숙 황태숙

(2006년 5월 현재 · 가나다 순)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55평
● 가액: 5억5천(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화성군
● 특징: 산세수려하고 양쪽으로 계곡이 흐르며 큰 호수 있음
● 평수: 1200평
● 임법당, 요사채, 차고, 창고 있음
● 주지스님 건강 상태로 매우급함
● 가액: 1억2천만원(가격절충)
010-4604-9255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 청량리시장안 교통아주편리,버스 · 전철 · 기차역 5분거리,인구이동 많음
● 상가건물 2층 중 2층. 50평 법당1,방3,주방, 기타시설완비, 옥상사용
● 가액 : 보증금 400만원,월20 시설,수리비3300만원
010-7135-4030
꼭 오실분만 전화요망

사찰안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252번지
● 대지: 문화재급 목조건물 대웅전 36평 요사채 30평
● 삼성각 6평, 종 누각 2층 10평
● 미륵부처님, 부처님 다 모셔져있음
● 물좋고 산세 수려함.
기도도량으로 최적 ● 가액: 15억
031)674-1117
011-250-7279

토굴안내
비구니스님 적지
● 위치: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420평, 법당 30평, 산신각, 큰방2, 창고1, 입불2.5m 한분
● 가액 : 5천만원
● 마당까지 주차가능, 시내버스 종점에서 약 200m
061)684-3494
061) 684-2399
010-3114-3494

칠갑산줄기 사찰터
● 방향 : 서, 남향(연화부수형)
● 위치: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산 2-4 산세좋고 공기 맑음
● 면적:15485평(관리지역) 평 3만원
● 특징: 산앞 냇가 흐름 (서쪽에서 동쪽으로)
● 도로현존(공부상현존) 2차선에서 350m진입, 휜히보임 고속도로 I.C 에서 4.5km 전방
011-433-1744
(주인 직거래, 답사 환영)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보령시 주고면 신대천리
● 건물: 611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27평
● 가액: 2억5천만원
041)932-0533
016-236-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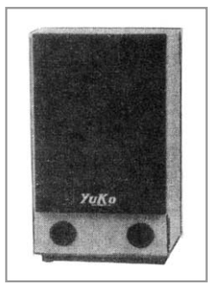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500평, 건물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명당(부귀복덕)적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지하철 1호선 7호선 7-10분 거리
● 대지 184평, 건평184평
● 2Km이내 중산층(아)5만세대 중,고교18 · 초등13곳
● 포교당 최적, 시가 17억원
연락처: 011-9646-1990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실전구성학
단기 속성 완성
- 운명 운세 방위학(개운 비법)
- 특별한 암기법
- 알기쉽게 풀이한 명강의
- 3인 아상이면 지방 출장 가능

백도현 구성학
011-9735-1742(서울)

천도재, 사찰행사, 불공, 전통의식 여법하게 집전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출마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입후보출마자는 꼭 가족과 함께 동참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당선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당선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준비물 : 향, 초, 쌀, 과일, 각종경전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기도장소 : 서울,부산,대구,마산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비	경
안	49재	육	시		나비	
식	재	재	식	물	춤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각 사암 등록 신청 및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스님
- 스님이 되고자 하는 행자 (남, 녀)
- 동자모집 (가정이 어려운 환경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3174
문의 011-502-3966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철야기도 ♦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
각종 경전독송 효과적인 방법지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을 드립니다
김종길·임명선·김광미·김경록·김선희·김민경
필요하신분 011-801-4355 전화환영
상담환영
대학입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방문 살핌과 노후에 회향을 잘 하실 분
적정없이, 조상영가천도 상담하십시오
6월6일 현충일 국립묘지에서 영가천도 책을 보시합니다
포교활동하실 분
동참하실 분 언락바랍
각종 장벽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동참환영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맨발등산

산삼과 비교되는 신비의 명약 봉삼
잔병이 많고, 고혈압, 당뇨, 막힌 혈관에 최고
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043)733-1239
010-2243-9776

법력 20년이상된 부전스님과 총무스님으로 20년이상 근무하신 스님 모십니다
종무원 및 사무원(女)구합니다 (각1명) (절에서 3년이상 근무하신분, 숙소제공 가능)
사찰 백련사
031)559-0892

평생 사찰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전세도 드릴 수 있습니다 (55세-65세)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교당도 하실 수 있습니다
018-427-2256

사찰女사무원
(45세이하)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41)673-188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절에 기도하며 계실 분)
054)654-4925
011-758-1819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사찰관리하며 서로 탁마하시면서 용맹정진하실 비구니 스님들과 기도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055)533-4203
011-9790-1779

행자모집
(남녀불문,50세미만)
출가에 뜻이 있는 분 모십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종정큰스님 주석사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대인사
전화055)375-2076/7
011-565-6643

부전스님 모십니다
▷동해시
033)534-7661

사찰에서 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54세,
1종 대형면허 있음
010-6476-6026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지방분 환영 ● 포교활동 하실분 ● 스님동참환영 ●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신행단체 특강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공, 생일불공
●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서울739-5008
부산635-7008 마산245-2662
상담은 중요합니다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07 김진동

28숙 특별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동방전통침술강좌안내
모든 질병은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됩니다. 동방침술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비법을 배우십시오(3개월과정)
※ 14경락의 체계적인 습득과 완벽한 취혈, 사암침술법, 오행처방법, 기초맥진법, 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법, 병증에 따를 즉효 침술요법, 내 몸의 병을 스스로 고치는 침술자가치료법
- 개강 : 5월15일 (월, 화반, 수,목반, 야간반)
- 위치 :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1,6호선 동묘역 5번출구
- 문의 : 018-312-7110 동방전통침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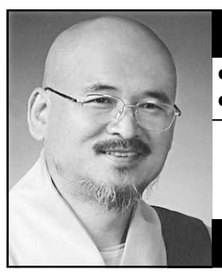
척추,목,어깨,짝다리, 원인불명통증,체형교정, 탈골
빙의(신들림), 기공, 최면, 전생, 급방 천도, 사주, 작명, 풍수지리
무 료 상 담
02)835-2399 / 011-817-338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지장보살(도자기)
"고급" 1자 지장보살(청자 · 백자)
1,000불 저렴하게 드립니다
※ 한정판매 300불 이상 선착순
- 높이: (좌대포함) 약 34cm ● 넓이: (가로) 약 14cm
- 가격: 1불당 12,000원
- 요장: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 판매 연락처: 042)282-2334
016-606-565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충재)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반,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22-25-0005-381(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찰안내
1.남한강사찰 1000평-3억
2.서울종로산중사찰-30억
3.경기광주현대식사찰-12억
4.퇴촌절터27000평-5억4천
5.여주사찰120평-전세2억
6.수유포교당15평-월40만원
•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연신내우체국옆 3.6호연신내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층건물중 2층 약40평, 방2칸, 부엌1칸 삼존불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월 50만 시설비, 보증금 답사후 좋은조건 의논

016-542-1055

사찰,토굴 급히 구함
양도하실분은 지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터 -
- 위치 : 부산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부지 : 80평
- 가액 : 2억5천

- 위치 : 포항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부지 : 760평
- 가액 : 6억

- 위치 : 경남사천
- 총평수 : 16000평
- 가액 : 4억1천
- 위치 : 경북포항
- 총평수 : 700평
- 가액 : 3천만원
- 위치 : 경남사천
- 총평수 : 7000평
- 가액 : 1억6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청옆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일체시설완벽, 부처님 5불, 아미타불, 호신불 300불, 불단 옥탑에 산신각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0-6244-9111
032)684-3894

사 찰 안 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에서 위치 최고
- 총평수 : 47평 5층 중 4층
- 가액 : 보증금 2천 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235-9318

- 위치 : 서울
- 종교부지 : 약 1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9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대지 : 약 24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가액 : 11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임대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 건물: 4층건물에 2층, 법당 25평, 요사채 13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900만원

016-9599-0108 소원사

사찰안내
- 위치: 부산
- 건물: 대웅전 25평, 종각 2평, 산신각 5평, 용왕전 3평 요사방 6개, 주방 10평
- 실평수 900평정도, 사용평수 2000평
- 주차 30대, 사찰연혁 70년
- 가액: 5억

010-4877-5900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예천군 감천면 감천면사무소 앞 (예천읍 20분거리 영주역 20분거리)
- 법당, 요사채,마당,텃밭,- 80평 요사채 (큰방2개, 작은방1개,주방, 욕실, 화장실 2개, 창고) 도배, 장판, 페인트,욕실 모두 새로 했음
- 가액: 5천 3백만원

054)655-4565
010-9596-1225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산신각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전세는 1억에 가능)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대행스님

네 마음을 증득하고 네 마음을 발견하라!

어떤 것이 빠른 방법인지요?

문 많은 분들이 한마음 공부를 하니까 자기의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공 도리를 바로 가르치는 방법보다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방법이, 조사들이 가르치신 절대 공의 자리를 모르는 입장에서 활용에만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나는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쉬지 않고 걸어오면서 뼈가 굵어졌습니다. 이 뼈 자체도 없는 거지만 말입니다. 그랬는데, 별짓 다 하면서 가르쳐 왔지만 도저히 안되는 것이 '관세음보살' 하고 바깥으로만 찾고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가슴에는 하나도 불을 안 켜고 바깥에다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정이 윤택해지고 자기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부처입니다. 근데 자기 중생을 자기가 거들지 못할 땐 남도 거들지 못하고 해롭게만 됩니다. 아, 자기 몸뚱이 하나 해롭지 않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몸뚱이를 해롭지 않게 하겠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천을 옮길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건 생활과 불교가 분리돼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직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 따로,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 들이는 거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불교를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을 증득하고 네 마음을 발견해라!' 이런 거지 찾으라고도 안 그랬습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찾기는 뭘 찾습니까! 발견해라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들한텐 주인공을 주장했고, 또 딴 사람들한테는 심주(心柱)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진실된 마음으로 '이 너가 바로 심주다.' 이렇게 집어 주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또,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진실로 받아들이느냐, 진실로 줬느냐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불성은 유생 무생의 불성이 다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항상 빼고, 극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항상 빼고 합니다, 모두. 예를 들어서 '죄 몰락 놔 버려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선 "다 몰락 놔 버리면, 그냥 놔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놔 버리지 그럼 돈 내고 놔 버리시겠소?" 이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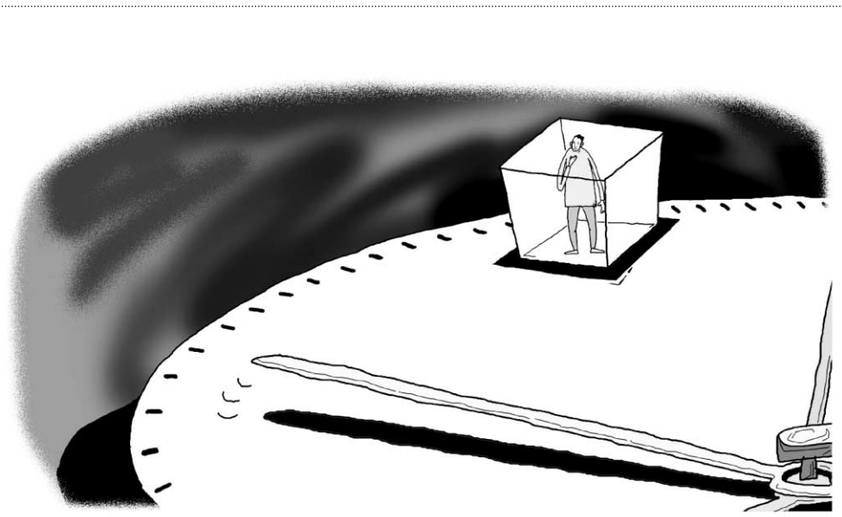
공(空)에서 와서 공에서 사라져요. 근데 왜 공이라고 했느냐. 우리 모두가 살아 있고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 겁니다. 이 공을 유로 살리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유에 나타나는 이 자체를 지금 기독교에서는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나툼으로 끝났습니다. 나툰다! 이것은 엄연히 살아서 나투면서 돌아가고 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나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왜 공이라고 했겠느냐?

먼 데를 보지 말고 가까운 데를 보세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고정관념 속에서 고정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만날 때에 고정된 생각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런 생각이 나고, 그렇게 그 사람에 맞춰서 말을 해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을 수억을 가졌고 회사를 수십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고를 만들어 놓고 고를 받는구나.' 하는 거를 아마 실감할 겁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방 한 칸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거만큼, 두 칸 있으면 두 칸 있는 대로, 회사가 열 개라면 열 개 있는 대로 그 고는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열 개를 가졌어도 함이 없이 할 것이고, 방 하나를 가졌어도 함이 없이, 가졌음이 없이 가졌고, 함이 없이 생활을 하니까 그것은 관리인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나갈 수만 있다면 참 보람 있게, 인생살이를 아마 멋있게 살 겁니다.

내 거, 내 회사, 내 재산, 내 사람, 내 사랑, 웬 게 그렇게 내 게 많은지 전부가 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끄달리고 얼마나 복장을 치고 얼마나 애통하고 살맛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 봤던들 몇 해나 살까요? 철들기 이전 빼고 철들고 나서 몇 해, 몇 해가 지나고 나면 껍데기가 인제 늙어지게 되니, 젊어서 몇 해 동안이나 기분 좋게 내 거라고 그러고 살까요? 난 한심스럽습니다. 모두 사는 게 말입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시계추가 가는 것처럼 자기는 가는 줄 모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대로 그것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도리를 모르면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한 채,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점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른다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나 그 도리를 알면, 허무 아닌 것도 아니요 허무한 것도 아닌 그 실상의 그 지혜는 이 우주를 덮고도 우주의 모든 것이 내가 아님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자유스런 그런 마음으로써 아마도 평화스러울 것입니다. 남들처럼 잘 먹는 것보다 우거지에다가 보리밥 한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주 참 웃음이 날 수 있는, 그렇게 좋아서 웃음이 날 수 있는 그 웃음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에서 와서 공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공이라고 했느냐
모두가 살아 있고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 겁니다
이 공을 유로 살리기 위해서!

삼배를 하는 이유?

문 저는 처음으로 절이라는 데를 가 보았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갔지만 웬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절에 가면 법당에 가서 삼 배를 하라고 하셔서 그냥 세 번하고 왔는데요, 굳이 세 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 그걸 삼세, 삼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도 은혜지만 스승님의 은혜라든가 부모의 은혜라든가, 이런 거는 삼 단계로 나누어서 볼 때 원 뜻이 그렇단 얘깁니다. 한 번은 자기를 낳아 주신 부모의 은혜, 두 번째는 교훈의 은혜, 즉 말하자면 가르침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생물들이 같이 하면서 같이 돌아가는 거, 같이 돌아가면서 니 부모 내 부모 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내 부모니 부모가 되어 돌아갔으면 한 번은 또 딴 부모한테로 돌아가고, 딴 부모에 돌아가면 내 부모한테 또 돌아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니 부모' 하고 찾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 공덕이 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공덕이다 이거죠.

삼세라는 뜻이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고, 그걸 점보해서 삼세라고 그러는데 삼세를 한데 합쳐서 일심으로 항상 관하고 '항상 들이고 냄도 그 구멍이다. 들이는 것도 그 구멍, 내는 것도 그 구멍이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를 공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약사든지 관세음이든지 지장이든지 어느 거 하나 못 하는 거 없이 지신 지장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윗분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자기 네들이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이어서.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인연을 아주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는데, 불가의 인연도 근중하지만 사가의 인연도 근중합니다. 그런데 유가나 불가나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우리가 어버이한테는 큰 은혜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길게, 그냥 길다 짧다 할 거 없이 그냥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다 그런 소립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초파일도 있고 어버이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이 있어서 모두들 감사한 마음으로 어버이와 스승님께 노래를 불러 드리고 그러지만, 그것이 남을 위해서 절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지마는 그것이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는 노래냐 하면 바로 어머니란 말입니다.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둘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마는, 이 세상의 진리가 어느 사람이든 다 나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도리가 이 한 진리예요.

그래서 절을 해도 자기 주인공한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법당에서 절을 해도 자기 주인공에다 하는 거죠. 부처님도 마음에다가 항상 두고, 그 주인공 안에다 항상, 내면에 두고 절을 하고 일심으로 생각을 그지없이 그렇게 해라 하는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

문 저는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택했을 때는 옳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보다 성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종교인들이 어떤 때 보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뉴스거리가 되고 이러는데, 그럴 때면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배신감이 들면서 과연 이 사회를 누가 이끌어 줄 것이며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답 난 참 답답합니다. 왜냐. 그런 걸 왜 보십니까? 바깥으로 바깥 경계를 보지 마십시오. '나'가 걸어갈 때 나만이 떳떳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내가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온 누리를 싸고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우주간 법계의 요소가 다 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을 잘 갖는다면 그것도 역시 잘 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길러 보시죠? 저희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면서 자라야 이게 성장이 빠른 거죠.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웅치고 있으면서 활발하지도 못하고 나가서 놀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싸움도 안 하고 가만히 요렇게 앉아만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넓게 생각을 한다면 아주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좁게 쓰지 말고 넓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생각을 해야지, 요런 좁은 생각을 해 가지고 색으로만 "저것 저것" 이럭하면 아예 이건 정말 우리가 불자로서 공부할 수 있는 태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오늘부터는 딱 떼어 버리세요. 딱 떼어 버리시고 오직 내가 부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것이 아니다 기다 할 거 없이 '나의 주인공이시여. 당신이 억겁 천 년 전에서부터 나를 이끌어 왔어. 지금도 끌고 가고 있어.' 하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걷고 있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걸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게 했는가. 누가 귀로 듣게 했는가. 누가 눈으로 보게 했는가. 내 발을 누가 옮겨 놓게 하는가. 이거를 지켜보신다면 그 주인공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공 속에서 그게 다 나오는데 주인공이라는 것도 껍데기에 불과하고 심주(心柱)라는 것도 이게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심주라는 걸 붙렀는데 인제 심주라는 것도 더덥니다. 이거 홀딱 벗었습니다, 인제."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깐 "그냥 처음에는 '주인!' 이러다가 나중엔 주인도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화두를 갖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로 인해서 모든 걸 홀랑 벗을 수 있는 그런 직감적인 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화두를 들고 바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안으로부터 생긴 거니까 안으로부터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지, 바깥에서 들이고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지키고 나로부터 가는, 그 길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고 걸어가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그것이 합일이 돼야 우리가 이름 지어서 견성이니 뭐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몸을 이끌고 갈 때, 병이 났든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든 또 식구들이 어떻게 됐든, 이걸 이끌어 가지고 어느 목적지까지 갈 때에 '내가 이거 아이구, 다리가 절룩거려서 아프니까 못 가.' 이럴 때는, 그거를 부축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옆에서 여건들이 있는 거를 전부 아주 다양하게 웃으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자기의 주인공, 그것도 이름인데, 그 주인공이란 게 평상심이죠. 그것을 본래면목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가는 거를 지켜보고 내가 하는 걸 지켜보고 가정살이에서 모든 걸 지켜보면서 이것이 바로 한 군데서, 주인공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를 알게 되면 믿는 것도 그 속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도 그 속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10년을 두고 공부 못한 것도 단 몇 년, 단 1년을 가도 우린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공이 초월됐다, 시공이 없는데,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데 합쳐서 에너지처럼 돌아가는 건데 구태여 이걸 나눌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을 하루로 만들 수도 있고 하루를 천 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억겁을 한데 합쳐서 요렇게 비벼서 떨어지는 요 먼지 하나가 우리 인생 한 횟수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얘깁니까? 그런 거를 한꺼번에 녹일 수 있는 그 문제가, 짊어질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다는 이 문제가 한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끄달리고 이런다면 이게 좀 많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심의 보시'도 있고 '인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이 경을 한데 모은 이 말 한마디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백 마디에 엇갈려서 떠나질 못하고 '나는 이걸 읽었더니 이렇더라. 나는 이 소릴 들으니깐 이렇더라.' 하는 여기에만 얽매이면 도저히 목적지까지 자기 갈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은 사람, 여러분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데 떨어지지 않는 말이 말씀이요, 한데 떨어뜨리는 말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직 내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라면 보통 그냥 그 마음이라고 하는데, 말씀 그 자체로 보면 평상심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상심 속에서 일거일동이 다 나옵니다.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보시심도 그렇고, 무주상 보시심도 그렇고…. 유주상이나 무주상이나 어디 둘이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유주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주상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무명을 칠 수도 있고, 어떤 때 따라서는 그 무명을 살려 줄 수도 있고…. 이 모두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 평상심이 바로 부처인 것

☞18면으로 계속

내가 산다는 생각없이 함이없이 하고 살아야

☞17면에서 계속

입니다.

여러분이 따로따로 이걸 그냥, 이거 읽고 또 거기 끄달리고, 이것도 보고 끄달리고 저거 끄달리고 이런다면 내가 갈 길이 지금 먼데, 어떻게 그렇게 이거 끄달리고 저거 끄달리고 허우적거리면서 갈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모두. 여러분 마음 자체의 본래 내 생각나기 이전, 본래면목, 그 주인공을 믿으라는데도 아,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딴 데 그림을 믿고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 있는 자기 실상을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그리고 감사한 줄 알아야 부모도 감사한 줄 압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는 절대 부모도 감사한 줄 모르고, 다섯 가지 대신 해 줄 수 없는 문제, 이것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죽음을 대신 해 줄 수도 없죠? 아픔을 대신 해 줄 수도 없죠? 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대신 해 줄 수 없죠? 똥 누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 이게 대신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앉은 자릴 고마운 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고 말입니다. 당장 지금 불이 나가서 고통을 받을 때만 "아이구 불이 나가서 어떡하느냐." 그러지 그 고마움을 느낄 줄은 모릅니다. 물도 고마운 줄 모르죠, 태양도 고마운 줄 모르죠, 바람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이 다섯 가지 문제가 다 그냥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걸 종잡아서 따지게 되면 이 주인공 하나에 전부 그 바람님이든지 흙부처님이든지 물부처님, 다 이게 종합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 몸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부가 배를 가지고 나갔는데 바람이 막 지동치듯 불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두 일체 유생 무생이 다 한데 합쳐진, 하늘과 땅이 다 합쳐진 주인공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당신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킨다면 어찌 이 배가 그냥 온전하겠소?' 한 생각을 순간 내는 바람에 그 바람 부처는 바로 자기가 되고 자기는 바람 부처가 된 거죠. 둘이 아니니까. 그 순간에 바람은 자고 잔잔히 그 배는 가게 됨으로써 그 생명을 다 살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생활의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용(用)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없다면 부처도 없을 것이고,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중생이 없다면 부처가 없다는 그 점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내 마음 자체가 바로 생각나기 이전 본래면목을 안다면 바로 그것이 있다고 입증해야 됩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증거입니다, 그게. 자기가 움죽거리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꿈에도 댁의 마음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끌고 다녔고, 생시에도 자기 모습 자기가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놔 버리지 못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길 그렇게 못 믿습니까?

그래, 이왕 도적질을 하시려면요, 도둑놈이 되려면 진짜 그냥, 아예 전체를 도둑질하세요. 안 하려면 아주 그냥 하지도 말고요. 욕심을 내려면 전체에 욕심을 내지 조그만 거 가지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욕심을 내려걸랑 아주 부처님이 이 세상 삼라대천세계, 우주 전체를 집어 먹었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이 집어 먹은 걸 우리가 뺏는다 하더라도 줄지도 않고 불인다 해도 늘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보면서, 모든 걸 지켜보면서 그것이 나 하나의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 알아야만 합니다.

욕심을 내려면 전체에 욕심을 내지

조그만 거 가지고 욕심내지 마세요!

똑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하시는 이유

문 스님께서 풀어 놓으신 『뜻으로 푼 금강경』을 보면 똑같은 표현인데 '선남자 선여인이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할 때는 응여시주이며 여시항복기심이니라.' 이렇게 한 부분에 스님께서는 '내면의 자생중생들을 둘 아니게 다스려야 되고 내면의 한마음 없는 한마음을 항복 받아야 하느니라.' 이게 전부 다 '한마음의 자생화신보살'로 앞에는 표현하시고 '한마음의 자생응신보살'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내면의 자생중생들'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내면의 한마음 없는 한마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절대로 다른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만 이게 글자 풀이를 해서 결국 보이는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될 때에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될까 좀 우려됩니다.

답 부처님의 말씀도 그냥 글로만 써 놓으신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동을 하게 했거든요. 그 말뜻이 이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글자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되 그 말의 뜻은 이동이 되게끔 했단 얘기죠. 남의 속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 이거죠. 글이 아니라 글이 아닌 말씀이다, 말씀 아닌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어느 사람 속에도 다 들이고 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얼른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이런 말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알기 쉽게 하려니깐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의 사람들이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공생이다' 이러면 '아, 몸체 하나가 전부 내 생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걸 옮겨 놓은 책을 열심히 보다가 어느 병자가 병이 나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등이 굽어서 고생했는데 하루는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그냥 작대기로 와서 치더니 등이 나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처님의 말씀이, 뜻이, 하나의 말씀이 수천수만 개로 돌아가되 돌아간 게 하나도 합이 없이 돌아갔다 이거죠. 그러니깐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난다 이 소리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활나활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이동이 돼서 보듯이. 이거 보면 이거 보고 저거 보면 저거 보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 수만 가지 모래알같이 많은 색색가지의 진리를, 순간순간 화해서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대치를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대치를 딱딱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깐 '이 몸뚱이가, 내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도 내가 합이 없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공해서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이 없이 하시라.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 내가 산다고 하지 말고 나 아닌 내가 그냥 사는 걸로 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이 껍데기는 마음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거지, 에너지가 동하는 자체가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하신다면 겉으로 보이는 걸로 뜻을 따지고 이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봅니다.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이재복 회장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 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단체강의 :** 삼성종합화학(주),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주), 한솔개발(주) 등 다수

天一氣功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현대인의 만성질병은 무게 중심이 무너져서 생긴다.
스스로 골반, 척추를 바로 잡아 무게 중심을 바로 세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56기 - 5월 18일(목) 오후 2시 - 21일(일) 12시
57기 - 6월 15일(목) 오후 2시 - 18일(일) 12시

<매월 1회 실시 - 선착순 20명 마감>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쉴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쉴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자기 죽는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제를 많이 지낸 후 빙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신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화주시면 책[약사 나경환 지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출산 · 고령화 화두풀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저출산과 높은 고령화속도에 직면해 있다. 시골 어느 마을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도 각 가정마다 하나씩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시대적 조류가 되었다.

심지어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부부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편 출근시간이 지나면 전철에는 노인분들로 가득하다. 소득수준의 상승과 의료혜택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괄목할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몇 년 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명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출산억제정책이 도입된 이래 1983년에 대체인구수준인 2.08명에 도달하였다. '인구대체수준'이란 부부가 평균적으로 2.1명의 자녀를 두는 경우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0.1명을 더하는 이유는 자녀가 성장하여 출산기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보충하기 위함이다.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5명에서 1.7명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16명으로 인구대체수준에 비해 0.92명이 적다. 이는 지난 35년 동안 인구대체수준에 비해 1,196만명이 부족하게 태어남을 의미한다.

사실 저출산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각국마다 나름대로의 정책개발에 부심하다. 저출산의 사회 문화적 여파는 잠시 논외로 치고,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수를 줄이고, 고령화를 가속시켜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 증가와 사회보장의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야말로 저출산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요인이 아닐 수 없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후적인 대응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 생을 마감하기까지 여러가지 경로를 거치게 된다. 출산과 관련하여 존재했던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은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단계가 교육인데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의 기회 역시 많이 개선되어 왔다. 문제는 교육을 받은 후 거쳐야 할 단계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다.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서 우리 나라 여성은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질적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고령화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일하는 노인'이 그 답이다. 미래의 노인 세대는 교육수준과 건강수준이 더욱 좋아질 것이므로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노동력 부족은 결국 노인과 여성 그리고 외국인 노동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평생교육을 서둘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는 십수년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활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매일매일 배워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수 또는 다단계 정년퇴직제 등을 통해 여러 일에 종사하며 여러 번 퇴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발상적 전환이 사회적으로 이해되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에 상징성 지닌 몇 가지 행보를 보여 주었다. 천주교 성가정입양원 방문과 5명의 사형수에 대한 수계식, 그리고 봉축문화마당에서의 시각장애 체험 등이 그것이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는 첫 시도로 앞으로 조계종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성가정입양원 방문으로 이웃종교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에게 수계함으로써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시각장애 체험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 역할이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불교로서는 당연히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일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봉축기간의 다짐이 일회성 이벤트 아닌 빈틈없는 실행으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더 낮은 곳' 향하는 불자되자

타 종교의 장점을 배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관스님이 방문했던 천주교 성가정입양원에서 불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즉각 대응하는 순발력과 진정성을 가진 봉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사무량심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사섭법'을 저들이 실천하고 있음이 아닌가.

범행 당시 무종교였던 사형수 57명 가운데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10명. 개신교와 천주교에 귀의한 사람이 50명가깝다는 통계에서도 포교의 적극성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낮은 곳'이야말로 종교가 임할 자리이며 그 낮은 곳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이 종교의 사명임을 누가 모를까?

불교 안 에서도 감동적인 현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종단 차원의 일과성 행사가 아닌, 종단 차원의 현장성 지닌, 그래서 사부대중 모두가 낮은 곳에서 동사섭의 실천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고 싶다.

총무원장 스님의 봉축기간 행보가 그런 자각과 실천행으로 전 불교계에 확산됐으면 한다.

■김징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인권과 사명감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판사의 권위주의적인 처사로 인해 법원일반직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당직근무에서 발생한 착오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가지 못한채 7시간 동안 판사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내부통신망에 올린 직원들의 항의글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면서 대법원과 법원노조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노조가 "직원을 7시간 넘도록 감금하고도 반성은커녕 판사만을 감싸는 행정처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사법의 상징 대법원 내에서 이용환 대법원장을 면담하려는 직원들과 경비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로 확산됐다.

유학중인 한 판사가 법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의 글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한 계장님이 송곳을 들고 기록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임님이 할 일을 왜 계장님이 하느냐'고 말을 했더니 '우리 재판부 일인데 어느 누가 하면 어떠냐'고 답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다"며 "판사들이 일반직 직원을 바라보는 눈과 인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화엄경>에서는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구절이 인간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교만을 다스리는 양약(良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박봉영(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석탄일이 아니라 '부처님오신날'

4월 30일 서울에서 벌어진 연등의 물결에 동참하면서 우리 불교가 이렇게 커졌구나 하는 마음에 벅찬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일년 중에 이렇게 불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되돌아가는 차안에서 시내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다. 방송뉴스 아나운서나 교통MC들 가운데 아직도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용어가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았는지 들쑥날쑥 이다.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이 정확한 용어로 알고 있는데 달력이나 불교 사이트의 여러 곳에서 '석가탄신일' 또는 '석탄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불교종단이나 봉축위원회가 좀더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이런 혼란이 없도록 차제에 홍보를 강화해야 한고 생각한다.

윤대수(서울 은평구 불광동)

운문사 유치원 꼭 이루길

운문사가 경산에 지으려하는 부설유치원 불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취학 전 아동을 키우는 젊은 불자들이라면 자녀의 유치원 선택은 늘 고민거리다. 이제 막 의식이 싹트는 아이라면 더욱 그렇다. 7살인 딸아이는 지난해까지 아파트 단지의 관인 어린이집을 다녔다. 종교색이 없는 곳이라 안심했는데 어느 날 저녁시간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부부는 기겁을 했다. 다행히도 인근에 불교유치원이 있어 아이는 올해부터 그곳을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들어온 몬테소리 같은 교회식 유아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자부부의 선택의 폭은 너무나 좁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운문사가 진행하는 유치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운문사뿐만 아니라 다른 비구니 승가대학들도 부속 유치원을 만들어 불자가정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윤경식(대구 동구 도평동)

초라한 동국대 100주년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식 준비에 분주한 듯하다. 그러나 현대불교신문 576호에 실린 동국대 기념행사 소식을 접하면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수계대법회, 학술세미나, 연등축제, 타임캡슐 봉안식, 시화전 등 행사는 다양하지만 어쩐지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에 치우쳐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규모 또한 집안잔치 수준으로 머물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학 100주년에 걸맞은 비중 있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교사업에 의해 세워진 비슷한 연혁의 다른 대학들에 비해, 동국대는 불교의 정신과 민족혼을 웅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100주년을 맞아 동문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 마련이 아쉽다.

박인득(서울 중구 만리동)

님의 등불

홍로(해인사 노전실)



중생이 부처의 목을 물고 놓지 아니하니
아… 사바세간 어느곳을 보아도
그님은 어제도 오늘도 간절히 슬퍼
아픈 마음 뼈를 녹여 갚으시네
여러 중생 고통바다 헤어나 건지시려
님의 몸 서슴지 않고 티끌같이 부시어 바치시네
편히 앉은 도하자여 불이법을 말하지 마오
붉은 꽃 내님죽어 천당 · 지옥 바라지 않네
함류군생 누군들 부르면 어디든 가야 하시니
그 서원 어찌 꼴이 있다 하시리
아… 끝없이 뼈깎아 붉은 하늘 기둥 바치심이여
서천 · 동천 붉은 꽃 검수산 화탕물 모두 품으시여
자성불이 중생의 목을 조이니
처처에 님의 등불 영원한 오늘일세
나무 대행 보현 보살

'현대'만평

심 민 섭



제4기 불교의식 (범음·범패)학인모집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기초범음, 범패)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전문직 범음 · 범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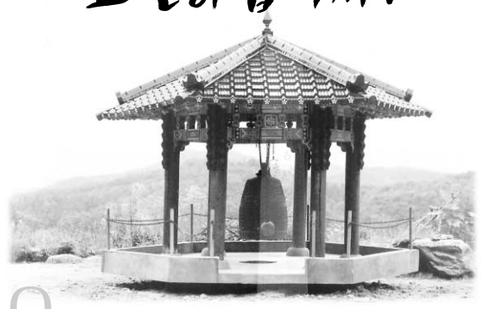
◆ 모집 : 수시모집
◆ 매주강의요일 : 화, 목(오후 5시~7시)

본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 겸 강주 김도진 화상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051)554-1518 / 011-849-096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영가 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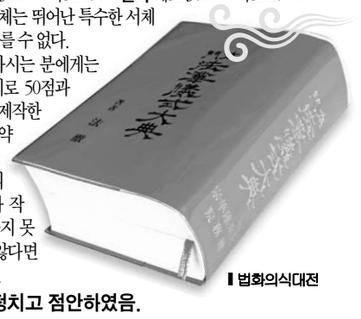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진무후무한
본문 법화의식 대전 출간!

1. 총 57가지의 의식이 수록되어 있다.
2. 의식내용과 문장구사력의 석문의 검은 비교가 되지 않으며 특히 의식 내용의 게송은 무비묘작이다.
3. 법화행자는 물론이고 일반 스님이나 신도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4. 의식외에 스님의 법명, 당호 처사의 법호 비구니의 법명 보살의 불명 예술인의 불명 법호가 수천개 수록 되어 있다.
5. 이 본문 법화의식대전을 행하면 수도요 수행이요 보살도의 공덕을 성취한다.
6. 이 의식책은 1천 8백수십 페이지다. 책값은 30만원으로
7. 다음의 뛰어난 작품은 옥문체를 주서로 쓴 수량품탑 한자와 한글탑과 지장경탑은 디자인이 특이하고 세계의 없는 독특한 옥문(玉文)체이다.
8. 한문 수량품 탑 세로 (68cm×가로 28cm 한글 수량품 탑 세로 72cm×가로 29cm 지장경 탑 세로 90cm×가로 29cm 불(佛)자 세로 40cm×가로 29cm 용(龍)자 세로 32cm×가로 27cm 달마 세로 36cm×가로 27cm
9. 이상의 서체와 필체는 뛰어난 특수한 서체로서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다.
10. 의식책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佛.용.달마 중 1가지로 50점과 붉은 주서(朱書)로 제작한 탑 1점을 더 드려서 약 150여만원의 이익을 보게해드린다. 의식책을 제외한 여타 작품이 서체가 뛰어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다면 즉시 환불해 드린다.



▌법화의식대전

※ 이 작품은 부정치고 점안하였음.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작업을 끝내고 막 뭍으로 올라오는 강양임(완도군 금일읍, 사시)씨. 마을사람들은 그녀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해녀 세대라고 말한다.

섬마을에 찾아온 선물 | 025

• 해피투게더 • ② 섬마을에 찾아온 선물

"사시사철 물질에 열두 마디 안 쑤시는 데가 없지라."

청정해안으로 유명한 금일도의 해녀들은 쉬는 날 없이 하루종일 바다 밑에서 전복과 다시마를 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근육통과 관절염을 달고 살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 늘 고생이었습니다. 게다가 행여 응급환자라도 생기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물리치료실은 물론 찜질방, 노인정까지 함께 딸린 보건진료소가 생기면서 이 곳 주민들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수시로 보건진료소를 찾아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방에서 피로도 풀며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받습니다. 30여 년간 물질을 해 온 강양임씨는 "우짜스까잉, 겁나게 좋구먼" 이라며 구수한 남도사투리 끝에 건강한 웃음을 쏟아 냅니다. 구릿빛으로 검게 그을린 강양임씨의 얼굴에 언제까지나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세운 완도군 금일도 보건진료소. 삼성은 행복동자사업,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전국 140여 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요, 희망으로!
SAMSUNG 삼성
해피투게더는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큰 희망을 가지게 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희망리포터 윤은혜가 그 아름다운 현장을 찾아갑니다.